



힘이 되겠습니다

귀여운 아들의 웃는 모습,
승진으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남편,
다음 달 타게 될 5년 부은 적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우리 반 아이들.

때론 생각만 해도 웃음 지어지고
힘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교직원라이프는
항상 교육가족 곁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담: 1577-3993 및 시도지부

The·K



CONTENTS

2018 JULY VOL.11



4
어는 글
 심표와 마침표, 그 사이에 두어야 할 것들

6
Essay
 밤꽃 따라 피어나는 할머니 어록
민인숙 충북 청주 옥산초 교사

8
Inside Out
 우리 시대의 쇼핑 트렌드

10
Special Interview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의 특별한 만남
소프라노 조수미

16
Interview
 아이들 안에 숨은 아름다운 씨앗, 커다란 나무가 되도록
구은복 경남 김해 관동초 교사 & **박현성** 진영금병초 교사 부부

22
아름다운 동행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과 함께 걷는 길
심경희 경북 안동서부초 병설유치원 교사
 & **김예원** 서울강동초 교사 & **이애경** 충남 온양신정초 교감

28
먼 나라 교육 편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찾은 나
송인숙 인천 인일여고 교사

32
트렌드 Go Go
 무거운 소유 대신 깃털 같은 렌탈

34
행복 만들기
 활기와 응원을 그대에게
 서울·경기 교사 치어리딩 동호회 **티치어스**

38
네오필리아
 서핑, 파도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40
브랜뉴 여행
 한 걸음만 더 가세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필리핀 - 보홀·바타네스

46
아는 공간
 빛, 바람, 물
 세 박자로 노래하는 공간
 제주 유민미술관

48
문화 캘린더
 이달의 공연, 전시

50
재테크 팩토리
 투자의 정석, 분산투자로

52
The-K Focus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은
 The-K 액티브시니어 강연회

56
The-K Family
 강원도 자연의 생으로
 The-K설악산가족호텔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2
독자 이벤트
 7월 즉석 당첨 이벤트

63
 편집실에서 띄우는 편지
 행복이 사랑이 가득한 집

The-K

VOL.11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8년 7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엄용선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genie@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황원 안호성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심표와 마침표 그 사이에 두어야 할 것들

너무 신나게 달린 탓일까요.
쉬는 일에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계획은 다 틀어지고, 목적지에 찾던 것이 없어
가끔은 무게를 가누지 못할 정도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거나
매일 반복적인 일상에 지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 죄책감은 큰 파도로 밀려와
스스로를 옥죄는 날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순간순간의 점들이 모여
겹치고 겹쳐져 쌓인 시간이 줄 수 있는 진정성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자양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애쓰지 마.
조금 지쳐도 괜찮아.
잘하지 못해도
때때로 오래 걸려도
바보같이 어리석을 수 있어도
괜찮아, 잠시 쉬었다 가도 돼.
너는 언제든 다시 빛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순간의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 삶이라면
당신의 7월은 어느 때보다 안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꽃 따라 피어나는 여름

오늘 아침도 요란한 새소리가 잠을 깨운다. 거실 커튼을 열어젖히면 녹음이 우거진 구룡산 앞자락이 코앞에 펼쳐진다. 각종 새의 지저귀이 정겹게 들리는 나의 보금자리는 고급 저택이 부럽지 않을 만큼 사계절 풍광이 참으로 근사하다. 6년 전 여름비가 부슬 부슬 내리던 날, 부동산업자의 손에 이끌려 집을 보러 왔다가 한눈에 반해 그 자리에서 계약해버렸다. 도심 한복판에 숲으로 둘러싸인 이런 아파트가 있다니... 지금 생각해 도 탁월한 선택을 한 내가 대견스럽다. 요즘은 밤꽃이 대세다. 밤꽃이 피기 시작해 하얗게 산자락을 덮을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얼굴, 나의 할머니! 밤꽃은 내게 할머니고 그리움이다.

지금은 청주국제공항으로 변해버린 나의 고향 '선바위'는 49년 전 국민학교 2학년 시절 처음 전기가 들어온 시골 '깡촌'이었다. 몇 집을 빼고는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이었으나 우리 집은 남들보다 좀 더 어려웠고, 그런 환경에서 할머니는 일찍 하늘나라로 간 아들 내외가 남겨놓은 손주 5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작고 아담한 체구에 육 한 마디 할 줄 모르는 온유한 성품의 할머니가 때론 작은 거인처럼 느껴진 이유가 무엇일까? 지혜롭고 특별했던 손녀 훈육법전에 실린 '할머니 어록'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록 하나

시골 부엌에서는 설거지한 물을 마당 한쪽에 뚫려 있는 수챗구멍에 버리게 되어 있다. 설거지통의 물을 수챗구멍을 향해 휙 뿌리면 밥풀이랑 음식물 찌꺼기로 주변이 허영게 보일 때가 있다. 그러면 어디선가 새들이 날아와 주워 먹곤 했는데, 그걸 보신 할머니가 "저 새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누?" 물으셨다. 가우똥하는 내게 들려주신 말씀은 **"계집년도 칠칠찮다, 계집년도 칠칠찮다"**라고 욕하며 먹는 거란다. 아무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도 그냥 새소리일 뿐인데... 그래도 나는 그제 참말인 줄 알고 이후론 개숫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했다. 음식물 찌꺼기를 거뒀 소, 돼지를 길러 살림을 보태던 시절이니 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가 얼마나 아까우셨을까.

어록 둘

텃밭에서 가지, 오이, 호박, 참외 같은 것을 따오거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어린 내 눈에 비친 할머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다. 튼실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은 친척집과 이웃집 차지였고, 남은 못생긴 것을 먹으라 하시는 할머니가 야속해 골을 부리면 **"안 주면 몰라도 남에게 줄 때는 좋은 것을 줘야 하는 거"**라며 좋은 것이 하나둘 사라질 때마다 타들어가던 손녀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매정하게도 말씀하셨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분명 우리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거야' 생각하며 맛있는 음식을 눈물과 함께 삼켜야 했다.

어록 셋

한여름 어느 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루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행색이 남루하고 땀물이 줄줄 흐르는 남자 걸인이 바가지를 내밀며 구걸을 하러 왔다. 내가 밥이랑 반

찬을 주어야겠다 싶어 일어서는데 할머니는 걸인에게 손짓으로 밥상 앞에 와 앉으라 하시며 내겐 밥이랑 수저를 가져오라 하신다. 무섭기도 하고 놀란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으려니 할머니는 눈짓으로 재촉을 하신다. 놀란 건 나만이 아니라 걸인도 마찬가지여서 손사래를 치며 바가지에 담아달라며 겸상을 극구 사양했다. 그 일은 걸인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부끄럼 많고 사양할 줄도 아는 보통 사람과 같음을 어린 가슴에 새기게 한 놀라운 사건이었다. 할머니는 밥상을 치우시며 **"거지나 부자나 벗으면 매한 가지, 다들 거 하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할머니의 호의에 못 이겨 죄인처럼 움츠리고 우리와 겸상을 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록 넷

삶이 때론 버겁고 고단해 주변을 돌아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굳이 내가 해야 해?' '누군가 하겠지?' 해야 할 도리나 책임감이 짐처럼 느껴져 계산기를 두드리고 궁색한 변명거리라도 찾고 싶을 때 온화한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래서 지금 네 맘이 편안 하나?" **"맘 편한 게 몸 편한 거보다 나은 거여"**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복잡한 잡념을 툭 툭 털어내고 행동으로 옮기면 어느새 내 맘은 천국이 된다. 몸은 다소 고단할지라도... 툭툭 던지시는 평범한 말씀은 어록이 되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였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수시로 튀어나와 내 삶을 참견한다.

그리고 그리움

할머니에게 친구이자 딸이고 손녀였던 나는 장성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90세를 넘기신 할머니 곁을 떠나 자취를 하며 어찌다 집에 오는 형편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모처럼 집에 들른 내게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삶은 밤 한 움큼을 주셨는데 그 모양새와 아물기가 다양하다. 손주며느리가 할머니 드시라고 드리면 손녀딸 먹이겠다고 한 톨 두 톨 주머니에 모으신 것이다. 새로 살아 주면 된다고 다 드시라 했음에도...

손녀딸을 애타게 기다리는 할머니보다 데이트가 더 좋아 날이 어둑해져야 집에 들어갔던 나의 철부지 행동이 너무나 죄송해, 차마 말하지 못하게 했던 삶은 밤... 그 밤에 깃든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이따금 내 딸에게 할머니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삶으로 보여주신 할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반만큼이라도 흉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따뜻해진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피어 할머니를 맘껏 생각하게 하는 밤꽃이 참으로 고맙다. 그래서 밤꽃은 내게 할머니고 그리움이다. 8월이면 나도 할머니가 된다. 내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는 이 담에 나를 어떻게 회상할까? 자못 궁금해지는 계절이다.

민인숙 충북 청주 옥산초 교사
8년 차 수석교사. 아이들은 꽃과 같아서 빛깔과 향이 제각각이다. 교사는 특별히 아이들의 빛깔을 제대로 볼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하다. 그 꽃을 잘 피우기 위해 작은 몸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무심히 던진 나의 한마디에 상처받는 어린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 시대의 쇼핑 트렌드

쇼핑.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기분은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쇼핑은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 생활의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변해가는 즈음, 쇼핑에 대한 흐름도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의 쇼핑 생활은 어떤가요? 공제회원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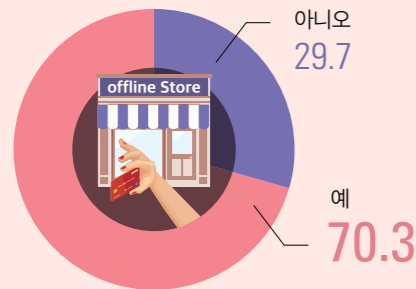
기간 2018년 6월 1일 ~ 6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 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3826명

성별	남성	35.1	
	여성	64.9	
	연령	20대	10.8
		30대	33.4
		40대	30.1
50대		19.2	
60대 이상		6.5	
직업	교원	61.6	
	비교원	38.4	
	유치원	3.0	
	초등학교	29.4	
	중학교	14.1	
근무하는 직장	고등학교	15.8	
	대학교(병원)	29.1	
	교육연수/행정/연구기관	6.8	
	기타	1.8	



(단위: %)

Q. 최근 3개월 내 오프라인에서 제품/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예	78.5	80.2	67.8	57.3	54.8
아니오	21.5	19.8	32.2	42.7	45.2

Q. 최근 3개월 내 온라인(모바일)에서 제품/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예	86.7	89.1	78.7	67.9	58.5
아니오	13.3	10.9	21.3	32.1	41.5

Q. 주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기타 답변: 서적/미디어 8, 전자 제품 7.3, 스포츠/레저용품 6.2, 유아용품 5.9

Q. 주로 온라인(모바일)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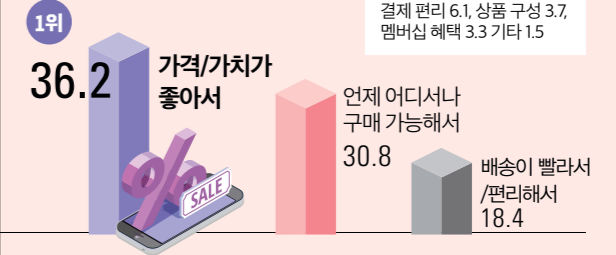
기타 답변: 화장품/향수 13, 티켓/쿠폰 12, 유아용품 9.3, 전자 제품 8.1

(단위: %)

Q.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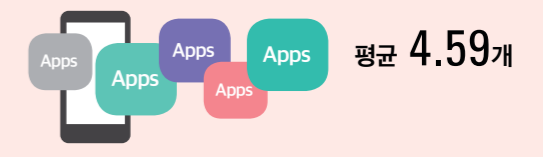
Q. 온라인(모바일)으로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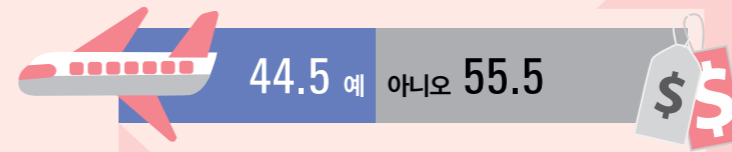
Q. 일주일에 평균 몇 개의 택배를 받습니까? (직접 구매한 물품 한정, 주관식)



Q. 현재 귀하의 스마트폰에는 몇 개의 쇼핑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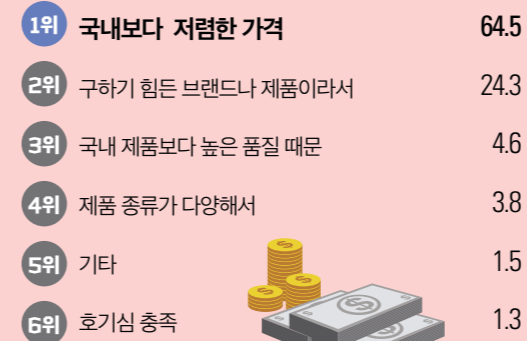
Q. 온라인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Q. 앞으로 해외 직구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있다	60.3	56.9	55.2	48.6	40.2
없다	39.7	43.1	44.8	51.4	59.8

Q. 해외 직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해외 직구를 할 때 어떤 물품을 주로 구매합니까? (최대 2개까지)



Q. 주로 어떤 국가에서 해외 직구를 이용합니까?

미국 69.4	중국 9.8	일본 7.0
독일 6.4	영국 3.1	프랑스 2.5
기타 1.9		





SU MI

9월 9일,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해주세요



JO

신이 내린 목소리 | 소프라노 조수미

소프라노 조수미가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와 특별한 만남을 약속했다. 오는 9월 9일, 지난해에 이어 다시 공제회원을 초청하는 '2018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 무대에 서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을밤, 'One Night in Paris'라는 부제로 파리의 밤을 선물하겠다고 말하는 그를 만나보았다.



변치 않는 열정과 의 조우

소프라노 조수미의 소리는 '찰나'이고 '영원'이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화려한 매무새로 무대 위에서 부르는 그의 노래는 봄꽃처럼 한순간에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세차게 후려치는 장맛비에 떨어진 꽃잎처럼 자취를 감추는 '찰나'다. 그가 들려준 노래는 오래도록 귓가에 남아 터벅터벅 홀로 걸어 돌아오는 골목길에 삶의 무게에 납작하게 눌러 피로한 우리네 삶의 간절한 동반자로서 '영원'을 이야기한다.

올해로 데뷔 32주년을 맞은 소프라노 조수미는 그렇게 기쁘거나 슬플 때 꺼내 듣는 오르골처럼 우리를 어루만져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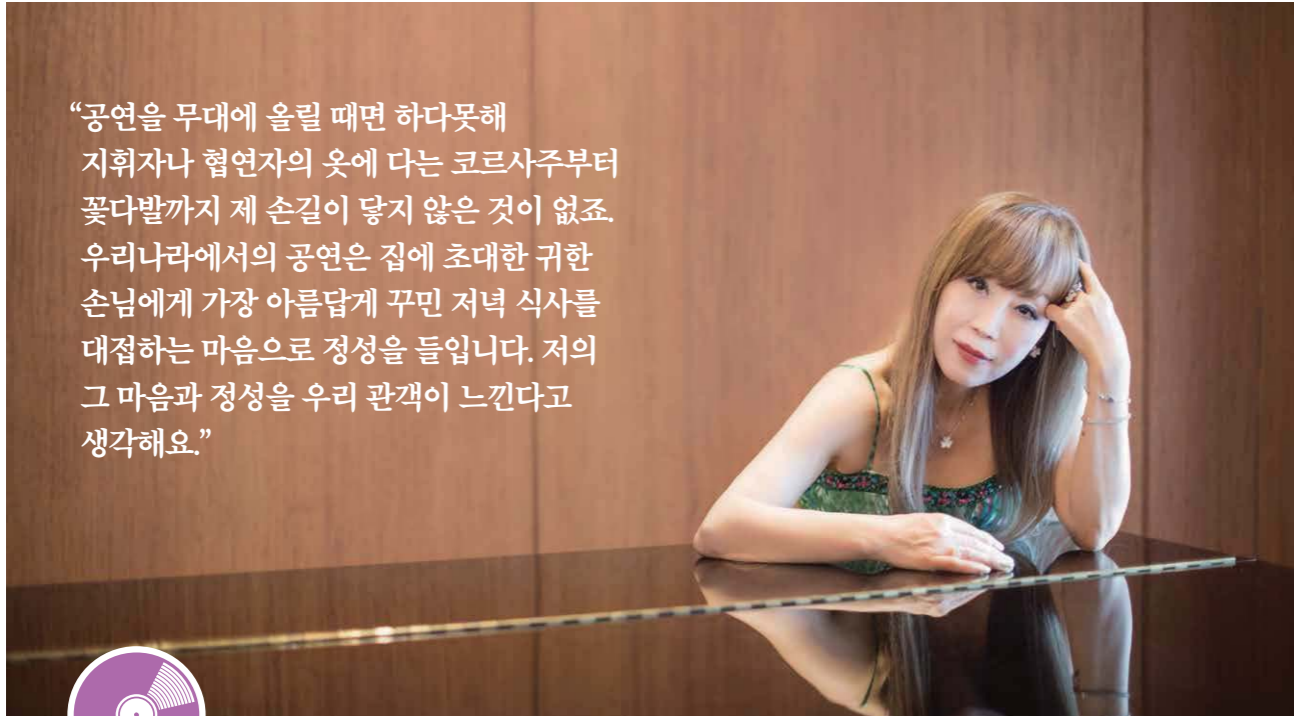
우연의 일치로 조수미 씨와의 인터뷰가 약속된 바로 전날, 경기군포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선 그를 만났다. 무대 위의 그는 변함없이 에너지가 넘쳤고, 2시간 동안 시대와 국경을 유려하게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쉽 없이 선보이면서 관객을 온전히 다른 세상으로 홀려냈다.

천장이 내려앉을 듯한 박수 소리에 계속해서 무대로 불려 나온 조수미 씨는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최영선 지휘자와 협연자 박종성 하모니시스트에게 돌리는 한편, 뜻밖의 손님 한 명을 무대 위로 불려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군포문화예술회관이 처음 문을 연 그날부터 20년, 하고도 5일을 더 무대 뒤에서 일했다는 직원에게 찬사와 박수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자기 삶의 20년을 극장에 바쳤잖아요.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을 무대 중앙으로 불러 관중에게 소개하는 건 저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요.”

무대 한편에서 오래도록 자신의 몫을 묵묵히 해낸 이를 위한 진

“공연을 무대에 올릴 때면 하다못해 지휘자나 협연자의 옷에 다는 코르사주부터 꽃다발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죠. 우리나라에서의 공연은 집에 초대할 귀한 손님에게 가장 아름답게 꾸민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입니다. 저의 그 마음과 정성을 우리 관객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정한 찬사와 경외심이 조수미 씨의 얼굴에서 떠날 줄 모른다. 그것은 아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던히 감내했을 오랜 시간 속의 헌신과 성실함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바칠 수 있는 일종의 헌사였을 테다.

마주 앉은 인터뷰 시간,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무대가 끝난 뒤 이탈리아와 필리핀을 돌아 한국을 다시 찾은 그는 여전히 뜨겁고 발랄했다. 인터뷰 전에 이루어진, 파크콘서트를 위한 홍보 영상 촬영부터 <The-K 매거진>을 위한 사진 촬영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다. 자청해서 드레스를 갈아입었고, 촬영감독과 포토그래퍼에게 이것저것 묻고 제안했으며, 그 결과물을 꼼꼼히 확인했다. 무대 아래 조수미와 무대 위 조수미의 결은 그렇게 여전히, 늘 한결같이 일치했다.

지금의 조수미를 만든 은사님

지난 32년간 수많은 나라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대에 오른 그지만 우리나라 무대와 관객은 늘 특별하다. “내 가족이고 내 사람이니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챙겨드리고 싶어요. 공연을 무대에 올릴 때면 하다못해 지휘자나 협연자의 옷에 다는 코르사주부터 꽃다발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

죠. 우리나라에서의 공연은 집에 초대할 귀한 손님에게 가장 아름답게 꾸민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입니다. 저의 그 마음과 정성을 우리 관객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조수미 씨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 이미 사랑받고 있는 셈 친다고 말하며 아이 같은 미소를 지었다. 객석의 사랑을 확신하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발걸음에 어찌 자신감이 실리지 않을 수 있고, 얼굴에 찬란한 빛이 감돌지 않을 수 있을까. 그가 가진 자신감과 당당함은 어쩌면 태생적인 디바의 DNA, ‘난 언제나 무대에서 사랑받는다’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티스트로서 높은 자존감과 자부심을 지닌 조수미 씨가 올해 9월 2018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 무대에 초대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는 훌륭한 스승들이 빛어낸 가장 빛나는 결과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저는 자라는 동안 좋은 은사님들을 연이어 만나는 행운이 있었어요. 유치원 때 선생님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노래를 부르게 해주었어서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초등학교 시절 김병규 선생님은 노래 잘하는 저를 정말 예뻐해주셨지

요. 나중에 보니 ‘우리 수미가 이렇게 잘 컸다’라며 방송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웃음) 선화예고 시절 유병우 선생님은 합창단 무대에 솔로로 세워주셨고, 서울대 음대 이경숙 교수님은 독일 가곡과 오페라 등을 통해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학교로 유학 가서는 보렐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가난한 유학생인 제 형편을 아시고 3년간 자청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개인 레슨을 해주셨죠. 심지어 당신이 쉬는 일요일에도 노래를 가르쳐주셨을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주셨어요.”

매 순간, 그렇게 삶의 중요한 시점에서 만난 스승들은 지금의 조수미 씨를 보다 원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마스터클래스에서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칠 때,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석에 앉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은 은사들을 통해 체득한 것이라며, 그분들께 배운 것을 고스란히 후배들에게 베풀게 된 지금을 기꺼워했다. 2011년, 2013년에 이어 2018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를 “큰 영광”이라고 말하며 “많은 책임감을 갖고 무대에 서고자 한다”라고 토로하는 이유다.

낭만적인 파리의 밤을 선물할게요

이번 2018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는 ‘One Night in Paris’라는 테마를 내세운다. 당연히 이는 조수미 씨가 추진한 아이디어이자 기획이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파리의 밤’이라니, 이는 어떤 의미일까?

“음악가로서 경력을 쌓는 동안 세계적으로 손꼽는 아름다운 예술 도시는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곳의 문화와 분위기를 느끼며 살았죠.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그런 곳에 갈 수는 없잖아요. 특히 파리는 음악뿐 아니라 패션, 미술, 와인, 음식 등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곳이니만큼 공연을 통해 관객 여러분에게 파리의 낭만과 열정을 전하고 싶었어요. 관객들이 자리에 앉은 채 파리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조수미 씨는 ‘음악’을 통해 파리에 가지 않아도 그곳의 풍경이나 문화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신은 ‘행운아’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어느덧 2018년도 절반이 지났지만 조수미 씨의 남은 시간은 지금까지보다 더 바쁘다. 동물 보호 시민단체인 ‘카라’에서의 활동, 장애인을 위한 기부, 자선 공연, 각종 단체의 친선 대사 역할은 그에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여전히

지속될 예정이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2018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를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투어, 미국 보스턴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의 마스터클래스, 홍콩 콩쿠르 심사 등 세계 곳곳을 누비는 스케줄이 빼곡히 잡혀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인으로서, 대중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 최중수



그에게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지 묻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긴 답변을 내놓았다.

“1986년도에 오페라 무대에 첫 데뷔했을 때 배움 못지않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한 달씩 집을 떠나 있어야 했고, 마음도 맞지 않고 재능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무대 위에 혼자 있는 게 좋다’ ‘솔로가 행복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제 이름을 걸고 솔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꿈을 꿔요. 몇 년 전부터 혼자서 리사이틀을 열고 프로덕션에 매이지 않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무대를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제가 먼저 가보고 ‘이거 봐라. 여기 이런 게 있다. 함께 보자’ 하며 제가 경험한 걸 모두와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제 꿈입니다.”

조수미 씨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또 이제 막 세상에 나타난 영 아티스트와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기획을 끊임없이 선보이고 싶다는 열망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술성을 높이 샀다. 예술성이 워낙 강해 뭔가를 선보이면 그 파장이 굉장히 크고 감정의 기폭이 깊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재미가 정말 크다고 말한다.

“대중이 원하고 듣고 싶어 하는 노래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노래보다 대중이 들어서 좋고 힐링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싶죠. 물론 제가 더 잘하는 것도 있고, 더 기교를 부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전 관객이 원하는 걸 들려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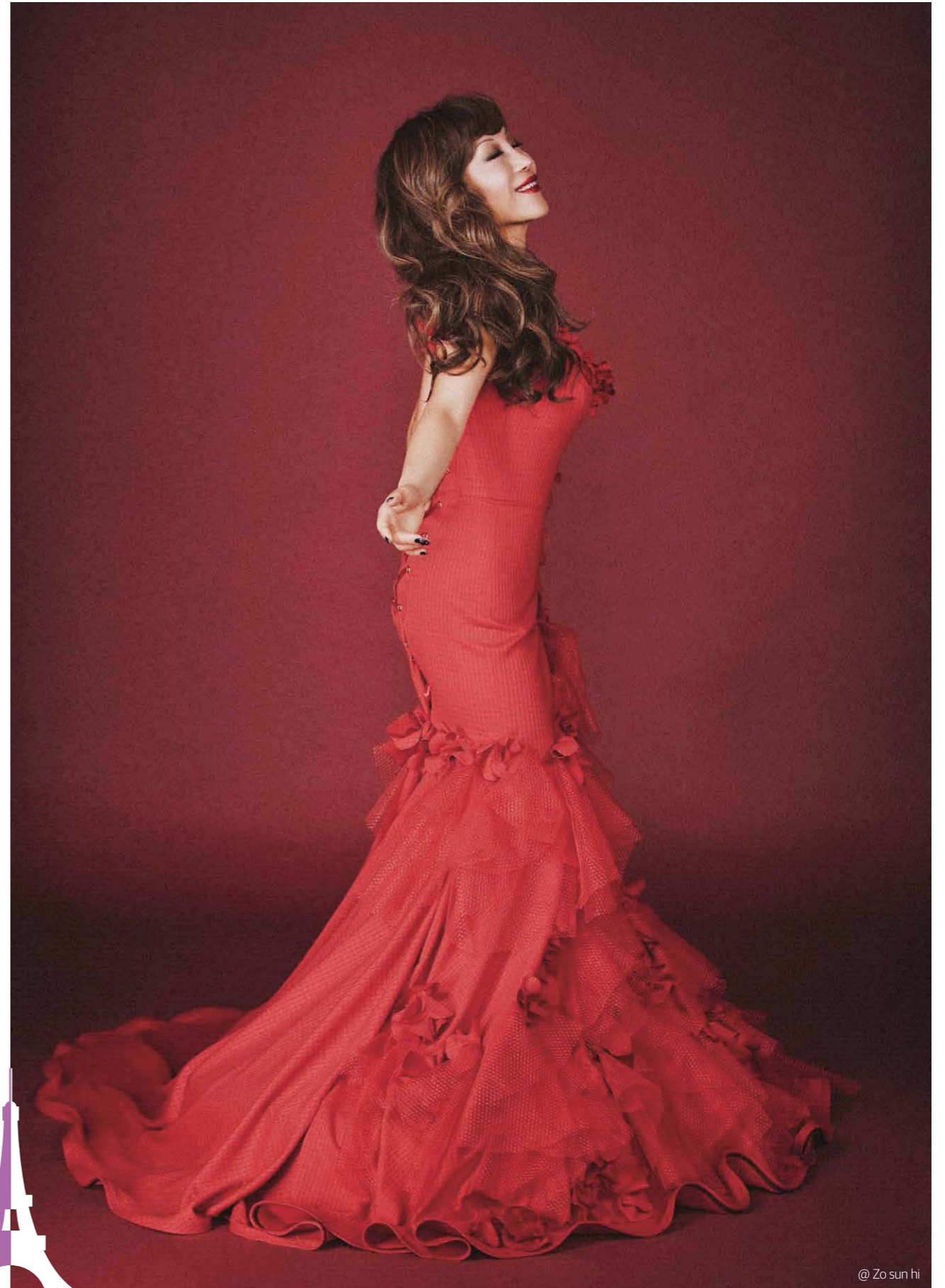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끔 어려울 수 있는 음악을 툭툭 던진 다음 점차 알려드리는 거죠.(웃음)”

오랜 시간 동안 조수미 씨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렸다. 그 세월 안에는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희열도 모두 녹아 있지만, 그는 매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무 중요한 문제(Serious Matter)였기 때문에 진지하고 또 열정적이었다. 그것이 때로는 불면증을 부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도전 의식이 더 컸고 덕분에 남들이 흥역처럼 앓는 매너리즘 역시 그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시 한번, 조수미의 노래는 우리에게 ‘찰나’이고 ‘영원’이다. 무대 위 그의 시간은 바람처럼 스쳐가듯 아쉽지만, 묵직하게 느낌을 전해오는 오페라 아리아, 심금을 울리는 가곡, 흥을 돋우는 우리 가락 속에서 그는 영원히 우리 안에서 살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는 9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가족에게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파리의 밤을 선물하겠다는 소프라노 조수미. 그의 미소처럼 또 한번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영원’을 기대해본다.

2018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파크콘서트

9월 8일 디즈니 인 콘서트, 9일 조수미 콘서트가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 총 1050명의 공제회원(동반인 포함 2900명)을 초청하며, 응모는 7월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 Zo sun hi

아이들 안에 숨은 아름다움은 씨앗,
커다란 나무가 되도록

박현성 | 진영금병초 교사 부부
구은복 | 경남 김해 관동초 교사 &

칸트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에게서 교육의 결과를 제거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칸트의 이 말은 오늘 만난 구은복 교사와 박현성 교사에게 더없이 부합한다. 사랑과 헌신, 연구를 통해 세상 모든 아이에게서 ‘미덕’을 발견하는 부부 교사. 그들과 학생들이 함께한 시간은 희망이고 행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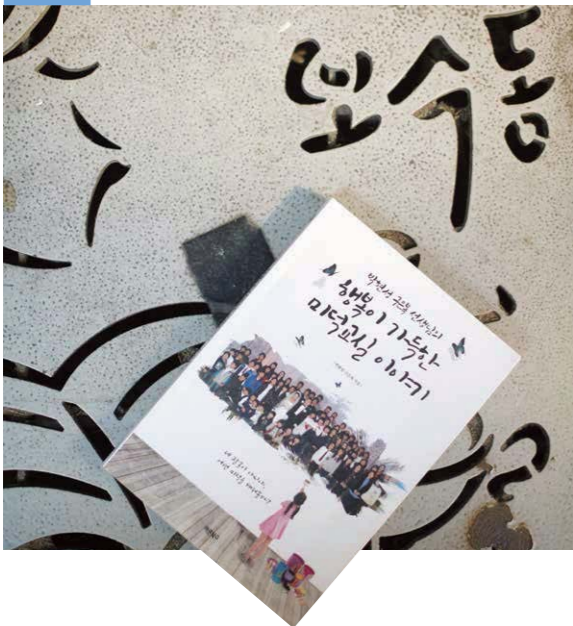
함께 봉사하러 다니실래요?

부산 보수동 헌책방 골목에 왁자지껄, 떠들썩한 가족이 등장했다. 아내 구은복 교사와 남편 박현성 교사 그리고 자녀인 민기와 지민이, 작년에 가르친 제자 셋이 나란히 등장한 것이다. 휴일조차 기꺼이 우르르 아이들을 대동하고 싱글벙글 환한 표정으로 나타난 부부 교사가 독특한 걸 넘어 살짝 신기하게까지 느껴졌다. 구은복 교사와 박현성 교사가 부부로서 인연을 맺은 건 2010년도 일이다. 100명이 넘는 어린 제자들의 축복 속에서 범상치 않은 결혼식을 올린 이들을 맺어준 건 뜻밖에도 ‘육아원 봉사’였다.

“임용고시를 끝내고 발령을 기다리는 동안 김해 삼성초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박현성 교사를 처음 만났어요. 당시 남편은 육아원 봉사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고, 제게도 함께 봉사하러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했죠.”

2004년부터 육아원 봉사를 해오고 있는 박현성 교사는 봉사의 ‘지속성’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던 차였다. 육아원 아이들은 어른들의 일회성 방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방문객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함께 육아원을 다니던 동료 교사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서운함을 느껴 봉사 활동을 오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현성 교사는 구은복 교사에게 “중간에 관둘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일찌감치 경고(?)했는데, 의외로 구은복 교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미 있는 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니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이라기보다는 언니나 누나로서 나를 기다리는 아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꽤 멀리 떨어진 육아원에 함께 다니면서 차곡차곡 쌓은 정은 깊어만 갔고, 박현성 교사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구은복 교사의 마음을 녹인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교육자로서 가진 일치된 가치관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부부는 마주 보며 웃었다.

진화하는 봉사, 더 넓게 더 크게

올해로 13년째 해오고 있는 부부의 육아원 봉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초기에는 공부를 가르치는 학습 봉사였다면, 지금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형식이 훨씬 다양해진 것. 이는 아이들의 변화는 물론 교육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화였다.

“교사로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늘더라고요. 초임 때는 그저 사랑의 힘으로, 보충학습 개념으로 봉사했는데, 지금 남편은 아이들에게 영재교육 기법을 적용하고 저는 수업 연구 교사로서 관계 개선 놀이를 응용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습보다는 인성과 사회성 교육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 거지요.”

여기에 부부는 아이들 지도와 관련해 다양한 자격증을 따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박현성 교사는 독서, 논술, 레크리에이션, 미술, 사회복지사 등 학생 지도에 필요한 자격증 100여 개를 취득했고, 구은복 교사 역시 80여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 “저희도 새로운 걸 배우기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과 놀이는 꼭 필요해요. 늘 같은 프로그램을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예전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교사의 표정에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결연함이 엿보였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 2008년부터 사제동행 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부부만이 다니던 봉사 활동에 학교 아이들까지 동참하니 봉사의 결과 색이 확연히 달라지며 풍성해졌다. “아이들은 봉사라기보다는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며 참여하고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악기를 잘 다루는 아이,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가 육아원 친구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걸 가르쳐 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사제동행 봉사는 육아원 아이들뿐 아니라 함께하는 학생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폭력 고위험군 문제 학생과 함께 봉사를 하러 간 날, 그 학생은 육아원에서 자기 못 지않은 말쑥꾸러기를 만났다. 소위 말하는 ‘학교 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하지 못해 찢절매는 외중에 뜻밖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분노를 꾸욱 참는다면, 아이에게 간식을 양보하고, 부부에게는 “선생님이 너무 힘들겠어요”라고 슬쩍 말을 건넨 것. 이후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담임을 비롯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칭찬과 인정이 만들어내는 기적

어떤 일이든 짧고 굵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이를테면 육아원 봉사 같은 일을 13년째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구은복 교사와 박현성 교사가 결혼하고 2명의 자녀를 출산, 양육하면서도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척이나 놀라운 사실이다. 물론 첫아이를 낳고 초보 엄마인 아내와 우는 갓난쟁이를 두고도 거르지 않고 계속된 남편의 봉사에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부부는 이 또한 대화와 이해로 해결했고, 지금은 두 자녀까지 대동하고 육아원을 방문한다.

“육아원 친구들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 임신과 출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봐왔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있는’ 민기와 지민이를 데리고 가는 게 그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저희의 일상과 아이들의 일상이 뒤섞여 자연스럽게 무던하게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돌잔치에 초대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없거나 학대받은 아이들이 훗날 가정을 꾸렸을 때 삶에 있어 어떤 지표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육아원 친구들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 임신과 출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봐왔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있는’ 민기와 지민이를 데리고 가는 게 그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저희의 일상과 아이들의 일상이 뒤섞여 자연스럽게 무던하게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돌잔치에 초대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없거나 학대받은 아이들이 훗날 가정을 꾸렸을 때 삶에 있어 어떤 지표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구은복 교사와 박현성 교사는 상복이 많은 교직자다. 미래교육 창조상, 선플지도자 대상(법무부장관상), 올해의 과학교사상, 전국 최우수 수업탐구 공동체(생각 네트워크) 선정, 언어문화 개선 수업사례 우수상, 과학 분야 최우수지도 교사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부부가 합쳐 받은 상은 끝이 없다.

“사실 처음에는 공적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알려지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교육이 부정적으로 소개되는 분위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걸 보다 많은 분이 알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봉사를 원하는 다른 선생님도 우리에게 방법을 물어볼 수 있고, 더 많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타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이야기>라는 책을 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마다 힘겨운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 관심과 교육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하고 행복해졌는가를 기록함으로써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 동료 교사들에게도 가능성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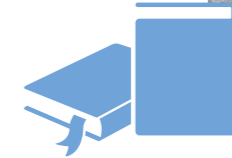
“이 책의 핵심은 미덕입니다. 저희가 심리학 등 관련 공부를 계속하면서 확신한 게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모든 아이는 마음속에 잠재 능력, 즉 미덕을 갖고 있고 우리는 칭찬과 인정을 통해 그걸 일깨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는 동화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아니라고 단호히 이야기했다. 흔히 ‘가정교육이 90%, 학교교육이 10%’라고 하는데 이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쉬지 않고 봉사하고 꾸준히 공부와 연구를 거듭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부의 얼굴에서는 희망과 결연함이 엿갈려 날아들고 있었다.

향후 구은복 교사와 박현성 교사가 꾸는 꿈은 같은가 하면 또 다르다.

구은복 교사는 “네 잘못이 아니야. 깨어나면 돼. 내가 도와줄게” 이 문장을 교직 생활의 지표로 삼은 채 지치지 않고 달릴 것을 말했다. 이에 반해 박현성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정말 우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구나’ 말해주길 바란다”라는 꿈을 꾸다고 이야기했다. 또 학생들과의 관계 못지않게 교실에서 어려움에 처한 교사

들을 돕고 싶다는 지극한 바람도 전했다. 포기 없는 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돕고, 섬 없는 관심과 애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씨앗이 푸르게 싹트길 바라는 구은복 교사와 박현성 교사. 그들에게 교육이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며 희망을 품고 있는, 커다란 나무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었다.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과 함께 걷는 길

김예원 서울강동초 교사
심경희 경북 안동서부초 병설유치원 교사 &
이애경 충남 온양신정초 교감 &

수많은 여행자를 만나왔지만 이달의 여행은 특별함을 넘어 의미함을 자아낸다. 딸과 엄마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라는 조합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일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일 수 있는 세 사람이 함께하는 여행. 그들은 이번 동행에서 어떤 추억을 가지게 될까? <The-K 매거진>이 함께 떠났다.



조금은 독특한 여행의 출발

이제 막 양가 상견례를 마친 예비 사돈이 함께 떠나는 1박 2일 여행, 과연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누가 들어도 혁, 소리 날 법한 조합의 여행은 경남 하동에서 시작되었다.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 식당에 일찌감치 도착해 있던 심경희 교사와 김예원 교사, 이애경 교감이 환하게 웃으며 취재진을 환영했다. 모두의 밝은 미소에 일단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안도가 유쾌함으로 바뀌는 시간은 그보다 더 빨랐다. 스스럼없이 주고 받는 대화, 소소하게 터지는 웃음, 누가 어머니이고 누가 예비 시어머니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예원 교사를 챙기는 두 어른의 모습은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두터워 보였다.

뜻밖에도 김예원 교사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된 인연은 예비 시어머니인 이애경 교감으로부터 시작됐다. 아들에게 소개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지 후배에게 부탁했고, 그가 다시 초등학교장인 시누이에게 주선을 부탁하면서 김예원 교사와 이애경 교감의 장남인 유경호 씨가 마주앉게 된 것이다.

두 청춘 남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사귀고 있는지, 예비 장모님의 생일에 유경호 씨가 직접 안동까지 내려와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만들어 대접했다는 자랑까지, 양가 어른들의 칭찬이 날아들어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졌다.

재첩정식, 메기매운탕 등 푸짐한 점심상이 차려지기 시작하자 세 사람의 관계가 더욱 분명히 보였다. 서로를 챙기고 반찬을 덜어 뇌주는가 하면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의 식성을 유심히 살피며 “예원이는 재첩국을 좋아하는구나”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에서 ‘세 사람은 이미 가족’이라는 느낌이 짙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개운하고 심심한 재첩국의 맛이 확 살아났다.



“이토록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는 과정에서
엄마로서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우연히 본 <The-K 매거진>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결혼은 두 가정이
한 가정이 되는 여정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기만 해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이동한 첫 번째 장소는 매
암차문화박물관이다. 이곳은 국내 최초의 차 문화
사립 박물관으로 유물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는 것
은 물론 차를 직접 마셔보고 체험할 수 있다. 박물관
의 작은 대문을 지나자 모두가 탄성을 내질렀다.
평지에 넓게 펼쳐진 차밭이 주는 청량함과 연둣빛
모습이 순식간에 힐링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왼쪽에 자리한 유물전시관은 1926년에 설치된 일
본 규슈대학 부속 남선연습림 부지 내 관사로 다다
미방이 있는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이다. 질화로, 토
기, 찻잔,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 근대 차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밝을 때마다 삐거덕
대는 마루 소리는 근대 시대로 데려다준다.
세 사람은 하동의 차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직접 물
을 끓이고 다기를 이용해 차를 마시며 그 맛을 진
지하게 논했다. 행여 부족할 새라 서로에게 차물을
채워주는 모습은 더없이 다정하고 따듯하다.
사실 이토록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내내 놀
라울 따름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분위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다.
“연애 시절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양가 어르신들
과 가까워졌어요. 서로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기도 했고, 사진도 보고 영상 통화를 하기도
했거든요.”
“저보다 먼저 예원이를 본 둘째 아들이 ‘형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엄마 마음에 꼭 들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난 예원이는 굉장히 밝고 말
도 예쁘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경호 씨가 김예원 교사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마
찬가지 반응이었고, 결국 양가 상견례를 1박 2일에
걸쳐 치렀다. 첫날 양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점
심 식사를 한 뒤, 둘째 날 곤지암 화담숲에 함께 놀
러간 것이다. 예비 사돈들은 교육가족으로서 공통
점을 발견한 것은 물론, 그간 간절히 바라는 좋은
짝을 만났음을 느꼈다고 한다.
심경희 교사는 이런 풍경을 누구보다 흐뭇하게 바

라본 사람 중 하나다. ‘아름다운 동행’에 직접 사연
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날 여행에 대한 기대를 누
구보다 크게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록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는 과정에서 엄마
로서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우연히 본
<The-K 매거진>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결혼은 두 가정이 한 가정이
되는 여정이잖아요. 여러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부인께서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기만 해요.”
만년 소녀 같은 심경희 교사가 말짱게 웃는다.

그옥한 차 향기 속에 담긴 감사와 배려

하동을 설명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리
산 자락의 흙과 물을 품고 무성하게 자라나는 야
생 차밭. 맵시 있게 정돈된 차밭이 아닌, 산자락에
굽이굽이 자연스럽게 따리를 튼 채 자라는 야생 차





|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

이애경 교감

1박 2일 동안 두고두고 떠올릴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갑니다. 혹시라도 훗날 우리 예원이 하고 서운한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을 떠올리면서 서로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매순간이 너무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사부인과 예원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일동 웃음) 예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원아, 우리 그냥 생긴 대로 보여주고 무뎠게 살자. 그게 결국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될 거야."

김예원 교사

양가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하자 주변의 결혼한 선배들이 전부 우려를 했어요. 가족끼리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른들을 모시고 가려면 힘들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소풍 가듯 설렘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 어머니께서 자매처럼 지내시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앞으로도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함께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양가 어머니는 합창하듯 "약속했다. 예원아"라고 외쳤다.) 내년 2월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지금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심경희 교사

너무너무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사부인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려 제가 확신을 얻고 갑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두 번째 부인은 지능이 정상인에 비해 부족한 분이었다고 해요. 도포를 빨간 천으로 기우고, 제사상에 올린 과일을 몰래 감추는 등 당시 유교 문화에서는 흠이 될 만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이황 선생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듬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요. 오늘 여행에 선뜻 응해주신 사부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밭의 매력은 실제로 보지 않으면 형언하기 어렵다. 어지간한 마력으로서는 쉽게 오를 수 없는 가파름이지만 올라가는 와중에 이미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산 전체를 뒤덮고 있는 야생 차밭의 위용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1200년 전부터 중국에서 가져온 차 씨앗을 키우고 있는 하동은 집집마다 고유 차를 만들어 마실 만큼 차 문화가 발달한 지역. 이곳 야생 차밭에는 수령이 무려 1000년 된 차나무가 존재해 그 의미를 더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인 한옥 펜션에 도착했다. 휘영청 밝은 달이 내려다보는, 깊어가는 산속의 밤. 세 식구가 머무르는 방에서는 두런두런 이야기소리와 작은 웃음소리가 격자창문 너머로 꽤나 늦게까지 이어졌다.

다음 날, 펜션 안마당에 푸짐한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두릅, 도토리묵, 마늘장아찌, 고추된장무침, 채첩국까지 입맛을 당기는 자연식에 하루를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다. 김예원 교사가 바쁜 펜션 주인을 도와 함께 점심을 나르니 그 기특한 마음 씀씀이에 어머니들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모두가 인근 배밭으로 산책을 가기로 했다. 멀리서 보니 꽃인가 했는데, 배마다 동그랗게 봉지를 씌워놓은 것. 차 못지않게 배가 유명한 하동답게 무성하게 자란 배나무는 짙고 짙

은 녹색 터널을 만든다. 그 밑에 자리해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세 모녀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이날, 김예원 교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이애경 교감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반지를 건네준 것. 이는 내 자식을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봐주는 예비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담긴 값진 선물이었다. 반짝거리는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자 내내 짹짹하고 상냥하던 김예원 교사가 밧그레하게 얼굴을 붉혔다.

모든 것이 그저 흐뭇한 심경희 교사는 두 아들을 위해 서울로 반찬을 해 나르는 예비 사부인이 요즘은 딸의 반찬까지 해 나른다는 이야기를 살짝 귀띔해주었다. "내 자식을 이리 예뻐해주시니 나 또한 예비 사위한테 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속에 새롭게 결합된 이 가족이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비밀이 살짝 드러났다.

1년 반의 연애 동안 한 번도 다툼 적이 없다는 예비부부. 그들의 사랑이 바로 아름다운 동행의 출발 지점이 아니었을까, 뜨겁게 외달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결혼 뒤에도 예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늘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두 분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동의 그윽한 차내음이 더욱 짙어졌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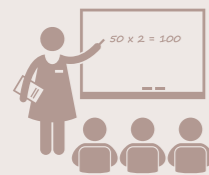
예비 사드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부흥재첩식당
 섬진강 하구에서 잡히는 재첩은 그 명성이 전국에 이른다. '까만 아기 조개'라는 뜻에서 하동 방언으로 '가막조개'라고도 불리는 재첩은 간 보호는 물론 빈혈 예방,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하다. 탕은 기본이고, 싱싱한 재첩회와 궁합이 좋은 부추와 함께 부친 재첩전까지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어 여름철 입맛을 북돋아주는 고마운 식재료다. 부흥재첩식당은 담백하고 깔끔한 재첩 요리를 다채롭게 맛볼 수 있는 곳이다.
 ①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98
 ☎ 055-884-3903

매암차문화박물관
 매암차문화박물관은 설립자의 호를 따서 그 이름이 붙었다. 평지에 펼쳐진 차밭, 매암다방,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어 하동의 차 문화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다. 유물전시관에는 차와 관련한 130여 점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하며, 매암다방에서는 직접 차를 끓여 마실 수 있다. 약 2만 m에 이르는 차밭은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전통 방식으로 차를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① 경남 하동군 약양면 약양서로 346-1
 ☎ 055-883-3500

하동야생차밭
 말 그대로 자연이 길러내는 야생 차밭. 아름다운 골짜기와 바위틈에서 자라는 찻잎은 계절에 따라 질푸른빛으로 변해가며 알프스 못지않은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지리산의 운무, 토질 등은 차나무를 키우는 데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하동 전통차 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동 차밭의 면적이 무려 350만 m가 넘는다고 하니 꼭 한번 둘러보자.
 ①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 055-880-2371-4

지발적 유배로 떠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찾은 진정한 나



스와질란드에서 보츠와나로

제 첫 파견지는 보츠와나가 아닌 스와질란드입니다. 가족의 반대와 주변 지인들의 불편한 시선은 아프리카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도착한 스와질란드, 10년 전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처럼 설레고 떨렸습니다. 다행히 다른 나라에서 온, 피부색이 다른 저를 좋아해주고, 환영해주었죠.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것, 오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 늘 환영해주는 동료 교사들을 만나는 것 모두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아이들도 한두 달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는 한국 학생들과 여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카리스마 있게 교실 분위기도 쥐락펴락했는데, 이곳에서는 너무

나 약한 신규 교사일 뿐이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외국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은 장난꾸러기 중학생들을 수업 시간에까지 잡아두기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한국인을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한국인을 대표하는 민간 대사로서 미소와 웃음, 친절함으로 다가간 것이 어찌면 실수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견 3년 차, 처음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2년간 스와질란드에서 신규 교사로 보낸 좌충우돌 경험은 이후 파견 교사 생활을 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보츠와나에서 교사로서 제 모습은 한국의 교사 시절과 비슷합니다. 이제는 교실에서도 여유가 생겼죠. 아이들에게 엄격해야 할 때는 엄격히 대하고, 농담을 건넬 때도 선을 지키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 말입니다. 아이들은 저를 외국인 친구가 아니라 선생님이로 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유는 열정으로 표출됩니다. 작은 시골 느낌이 강한 스와질란드에서 보츠와나로 옮겨온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넓디넓어 문화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 만큼 두 나라 정도는 경험해보고 싶어 파견국을 보츠와나로 변경한 것입니다.



학생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보츠와나

보츠와나 학생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고 재능 있는 학생은 1~2학기에 열리는 육상 대회나 구기 종목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학생은 2학기에 열리는 수학 경진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3배 정도입니다. 그만큼 땅이 넓어 지역 대회(3~4개 지역)에서 1,2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국가 대회가 열립니다. 국가 대회에서 1,2위를 한 사람은 국제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곳의 수학·과학 교사들은 무조건 한 대회씩 맡아 학생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수학 교과를 담당하는 저는 수학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제가 가르친 학생이 지난해 지역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해 국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국가 대회에서는 아쉽게도 4등에 그쳐 국제 대회에는 나가지 못했지만요. 올해 6월 둘째 주에 다시 한번 지역 대회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참가한 학생이 우승을 했습니다. 발표날의 그 떨림과 불안은 정말이지 제 심장을 아주 졸깃





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식으로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달달 볶은 것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도 우승 소식에 맘껏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라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 초,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로네(Gaborone)에서 열리는 국가 대회에 참가합니다. 그전에 프로젝트를 좀 더 보완하고,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이번에는 꼭 우승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보츠와나를 선택하게 된 이유

파견 국가로 보츠와나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인연 때문이죠. 스와질란드에서 파견 교사 생활을 할 때 방학 동안 오버랜드 투어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부터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까지 여행을 했는데, 멀티로 받아야 할 비자를 싱글로 받아 투어도 중 일행과 헤어져 혼자 보츠와나의 카사네(Kasane)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카사네까지 가는 중간에 들른 곳이 마운(Maun)이었죠. 버스타져 놓쳤지만 택시 기사님이 그 버스를 추월해줘 간신히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기억이 있어 보츠와나 파견을 신청했는데, 발령받은 곳이 우연히도 마운이었습니다. 그런 인연 덕분에 저는 마운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파견 생활 중 가장 큰 발견은 바로 나 자신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유배이자 파견 생활이지만, 힘들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계속 이곳에 머무는 이유가 뭘까?' '생활이 편하지도 않고, 필요한 것을 쉽게 구하지도 못하고, 며칠씩 단수되어 물을 길어 쓰면서도 왜 계속 이곳에서 지낼까?'

파견 4년 차가 되면 이런 생각이 점점 줄어들습니다. 답을 찾은 것일 수도 있고, 파견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파견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요리할 수 있다는 것, 조깅을 할 수도 있다는 것, 하루 종일 한마디 안 해도 지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별 보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때 미소 짓는지,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외로워하는지 알게 된 것이죠.

퇴근 후에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서서히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곳을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습니다. 그리움의 간격을 조금이나마 좁히고자 떠나는 그날까지 학교 이곳저곳, 학생과 동료들의 모습, 동네 꼬마들, 내가 좋아하는 동네 나무 등에 따뜻한 시선을 한 번씩 더 주려 합니다.



송인숙
인천 인일여고 교사
수학 교사. 현재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고군분투하며 파견 교사로 일하고 있다. 보츠와나에서 지내는 동안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진 것을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한다. 타인이 아닌 자신을 관찰할 시간이 많다는 것, 그것은 나를 잘 알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무거운 소유 대신 깃털 같은 렌탈

인생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무거운 소유 대신 깃털 같은 렌탈

가볍고도 뽀송뽀송한 라이프스타일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물론 '사지 않고 빌려 쓴다'라는 경제 행위가 새로운 발명품은 아니다. 인간이 문자와 숫자를 발명하고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대출 장부 만들기였으므로. 그런데 그동안은 주로 무겁고 비싼 것을 빌려왔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주택은 자가 비율이 최근에야 겨우 60%를 넘었고 사무실, 가게 등은 임대기 훨씬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구입 자체를 포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사가 번거로운 건 사실이지만, 이곳저곳 여러 동네와 환경을 경험하는 재미도 있다고 한다. 사무실도 '코워킹스페이스' 같은 곳을 필요한 때만 빌린다.

그동안 렌탈 시장을 주도해 온 제품은 자동차,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이다. 이것들은 고가의 제품이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자전거, 장난감, 가구, 패션, 예술품 등 렌탈 시장이 다루는 품목이 놀랍도록 확장되고 있다. "뭐야, 이런 것도 빌려 쓸 수 있어?" "뭐라고?! 이런 방법으로 빌려도 돼?" 탄성이 절로 나온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렌탈 시장이 2020년에는 40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 한다. 세계시장에서도 렌탈은 핫이슈다. 지난 3월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미국의 의류 대여업체 렌트 더 런웨이(Rent the Runway)에 2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렌탈의 대중세,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주말은 통째로 빌려서 살아보네." 친구 결혼식을 위해 서울에 왔다 짧은 여행을 즐긴 부부가 말한다. 부부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따릉이 자전거를 빌려 경복궁을 찾았다. 한복을 빌려 입고 고궁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고화질 액션 카메라를 대여한 덕분에 인생샷을 건졌다. 결혼식 복장은 지인이 소개해준 패션 대여점을 이용했다. 평소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만 하던 명품 가방과 구두도 빌렸다. 결혼식장을 오가는 동선이 복잡했는데, 시간제 카 셰어링으로 해결했다. 숙소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정집 방 하나를 빌려 썼다. 세련된 가구, 깨끗한 침구와 공기청정기 덕분에 아주 쾌적한 시간을 보냈는데, 집주인은 그 모든 걸 대여해서 쓴다고 했다. 둘은 돌아가는 KTX 안에서 말했다. "아예 이런 식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첫 번째는 '가성비 렌탈'이다. 경제 성장기엔 누구든 돈을 모아 집을 사고, 그 안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채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불황의 한파, 유례 없는 취업난에 시달리며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뭔가 필요해서 살까 하더라도, 그걸 보관할 장소가 없어 고민한다. 1인 가구의 증가,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환경 등도 이러한 상황을 강화한다. 최근 가정에서 책꽂이가 사라지고 있다. 대신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e-book을 대여하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동영상 강의를 본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순식간에 쓸모없어지는 유모차, 장난감, 학습 교재 등도 가능한 한 빌려 쓴다. 합리적 소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두 번째는 '올로 렌탈'이다. 멋진 자동차, 가구, 시계, 구두... 언젠가는 장만하고 싶지만, 그 언젠가가 과연 찾아올지 알 수 없다. 과거에는 포기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인생은 한 번뿐, 지금 빌려서 쓰며 즐기자! 그래서 짧은 휴가 동안 자동차를 빌리고 멋진 패션용품으로 꾸미고 럭셔리한 인생을 만끽해본다. 그 빛나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 자존감도 살아나고 삶의 활력도 생긴다. 올로 렌탈의 장점은 지겨우면 교체할 수 있다는 거다. 최신 스마트폰을 쓰고 싶지만 매번 고장 나지도 않은 것을 새로 살 수는 없는 경우 렌탈을 이용해 손에 쥐고, 싫증이 나면 돌려준다. 어찌 보면 번덕스럽고 사치스러운 취향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사는 행위라고 여긴다.



최근에는 미술 작품과 빈티지 가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렌탈 서비스도 생겨났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취향과 안목을 넓혀갈 기회를 얻는다.

세 번째는 '스마트 렌탈'이다. 스마트폰, 사물인터넷, GPS 등 새로운 기술이 낡은 렌탈의 영역을 넘보고 있다. 서울시의 따릉이 자전거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지정된 대여소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그러자 S 바이크, 쿠키 바이크 등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아무 곳이나 자전거를 세워두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에어비앤비가 누구든 안 쓰는 방을 숙소로 제공할 수 있게 했듯이, 개인들이 주차 공간을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시스템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P2P 카풀 서비스 리프트(Lyft), 유희공구와 장비를 대여하는 질록(Zilok) 등 렌탈 관련 아이템이 꾸준히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유는 종말에 이르렀다."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스님의 말이 아니다. 저명한 사회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21세기의 개막과 함께 우리에게 던진 화두다. 2012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리스, 렌탈, 타임셰어(time-share)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호황을 누릴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사람들이 지구의 모든 자원을 '공공재'라고 인식할 것이다."

우리 시대 소유의 반대말은 '접속'이다. 우리는 이제 음악 CD, 영화 DVD를 사서 보관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다운로드해 저장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만 하면 바로 보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의 또 다른 반대말은 '사용'이다. 누군가가 집 안 창고에 처박아둔 물건은 아무 가치가 없다. 누군가 그걸 빌려 먼지를 털어내고 사용해야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깨닫고 있다. 그래서 소유의 진정한 반대말은 '공유'다.

서울 후암동에는 '후암 서재', '후암 주방'이라는 색다른 공간이 있다. 누구든 예약만 하면 책을 읽고 작업할 멋진 서재와 요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근사한 주방을 빌려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공간을 사용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 묘한 공감대를 얻는다. 그래서 다음 사용자를 위해 공간을 아끼고 자발적으로 관리한다.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노하우를 나누기도 한다. 렌탈은 공동체와 친구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고 있다.

공유의 정신을 통해 렌탈은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된다. 내가 빌려 쓰는 물건이나 공간을 함부로 다루서는 곤란하다. 말이야 나면 내가 책임져야 해서가 아니다. 내 뒤를 이어 친구, 가족, 지인이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빌린 물건은 약간 부서지거나 고장 났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않는다. 전문가에게 맡겨 제 기능을 되찾거나 좀 더 멋지게 변신할 수도 있다.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에도 기쁜 소식이다. 사서 쓰는 인간과 빌려 쓰는 인간, 어느 쪽이 더 환경 친화적일까?

활기와 응원을

그대에게!

CHEER-

LEADING



서울·경기 교사 치어리딩 동호회 「티치어스」

경기 중인 운동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관객들의 흥을 돋우는 치어리딩(Cheerleading)은 승부를 겨루는 시합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 지 오래다. 2016년 여름, 첫 모임을 가진 '티치어스'는 치어리딩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 모여 만든 동호회로 치어리딩을 즐기고 그 즐거움과 배움을 다시 아이들과 나누며 삶의 활력을 만들어간다.



왼쪽부터 진한나(경기 남양주 부평초 교사), 권아영(서울중현초 교사), 현정민(경기 의정부 신동초 교사), 김민경(경기 고양초 교사)

교사와 치어리딩이 만나다

운동 시합을 관람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관중석 제일 앞에서 밝은 표정과 환상적인 호흡으로 춤을 추며 선수들의 에너지를 끌어 올리고 관객들의 열기를 북돋는 '치어리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을 때도, 이기고 있을 때도 지지 않는 그들이 보여주는 에너지는 경기 결과를 끝까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이니 그들의 존재감은 경기장의 '꽃' 그 이상이다. '티치어스'는 티처(Teachers)와 치어리딩(Cheerleading)을 결합한, 말 그대로 치어리딩에 관심이 있는 교사가 한자리에 모인 동호회다. 진한나 경기 남양주 부평초 교사가 치어리딩의 매력에 푹 빠져 티치어스를 만들고 회원을 모아 이끌고 있다. "중·고교 때 동아리 활동으로 치어리딩을 했어요. 특별한 소질 없이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엄청난 운

동량과 함께 친구들과의 협동심도 배울 수 있어서 푹 빠졌죠. 교사가 되고 나서 반 아이들에게 치어리딩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티치어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한 회원은 진한나 교사를 비롯해 권아영 서울중현초 교사, 김민경 경기 고양초 교사, 현정민 경기 의정부 신동초 교사까지 총 4명. 김민경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창단 때부터 함께 한 멤버이고, 김민경 교사는 가입한 지 이제 석 달 된 새내기 회원이다. 권아영 교사와 현정민 교사는 학예회를 위해 동영상 보면서 아이들에게 치어리딩을 가르치다가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자 가입했고, 김민경 교사는 일반 대학의 치어리딩 동아리에서 활동하다 교육계에도 이런 동아리가 있다는 게 반가워 들어온 경우다. 나이는 물론



교직 경력도 제각각이지만 티치어스의 조직력과 단합은 오늘 모인 4명의 교사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 뜨거운 별 아래서 서로를 챙기고 짐을 나눠 들면서 올림픽공원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마치 여고생들의 수학여행길처럼 즐거워 보이니 말이다.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

드디어 올림픽공원 내 '나 홀로 나무'가 서 있는 너른 잔디 들판에 도착했다.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치어리딩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붉은 조끼와 치마, 화려한 금박 블라우스가 영락없는 프로 치어리더의 모습이었던 것. 공원에 나들이하러 나온 가족들이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다.

흰 장갑을 낀 채 잔디밭 위에 선 교사들. 휴대용 스피커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오자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며 모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돌변했다. 환한 표정, 시원시원하게 뻗는 손짓과 화려한 스텝, 점프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들썩이고 덩달아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왜 사람들에게 응원이 필요한지, 치어리딩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었다.

잠깐 움직였지만 회원 모두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치어리딩의 활동량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셈. 새삼 전 회원이 바쁜 일정

에도 매주 토요일에 모여 연습을 하고 강습을 받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현재 21명의 회원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 있어요. 각자 실력에 따라 강습을 받고 연습을 합니다. 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강사도 초빙하고요. 동영상을 보며 우리끼리만 연습하기보다 전문 강사에게 직접 배우면 정확한 동작을 익힐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만의 독창적인 안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응원을 가르치고 응원에서 배우다

치어리딩은 교육이나 놀이, 개인적인 즐거움까지 다방면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권아영 교사는 “주말마다 힘들지만 꾸준히 시간을 내 운동하는 게 매우 뿌듯하다”라고 말했고, 김민경 교사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교대에 입학하는 바람에 티치어스 내에서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도 다들 마음 편하게 대해주고 열심히 끌어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자랑한다. 한정민 교사 역시 “치어리딩을 배우고 난 뒤 체력이 정말 좋아졌다. 같은 취미를 가진 선생님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니 즐거움과 함께 든든한 동지가 생긴 기분”이라고 싱글벙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치어리딩을 가르치면서 거두는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다.



티치어스
cafe.naver.com/teachers

“치어리딩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추는 춤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들을 신나게 하고 선수들에게는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타심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연습하면서 ‘손을 더 크게 뻗고 더 높이 뛰면 보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어’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면 눈빛이 달라지고 집중력도 더 높아져요.”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고 동작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감탄과 함께 더 큰 재미를 느낀다고. 티치어스의 행보는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2017년 여름 한강몽땅 치어리딩 페스티벌에 참석해 서울시의회와 주최 측으로부터 표창장과 공로상을 받은 티치어스는 다른 치어리딩 팀과 함께 지하철 역사 공연 무대에도 오를 예정

이다. 좋은 의미의 무대가 있으면 기꺼이 참석해 공연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하니 교사 자신에게는 물론 아이들과 사회에까지 널리 좋은 영향을 미칠 존재감을 지닌 단체로서 앞으로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우리 동아리는 가입을 원하는 선생님들의 성향 자체가 용기 있고 열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신입 회원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티치어스를 통해 먼저 치어리딩의 즐거움과 매력을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런 즐거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신입 회원 모집 때 많이 참여해주세요.” 무더위를 떨치고 신명 나는 응원 한마당을 펼친 티치어스! 선생님들의 ‘응원’을 응원합니다!



파도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서핑은 날뻐지를 타고 파도를 타던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원주민의 유희에서 시작했다. 이것이 하와이 원주민에게 전해져 전통 놀이로 이어지다 근대에 들어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해양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것. 7월, 서핑을 만끽할 최적의 시간이다. 서핑을 즐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최초의 서프보드는 롱보드

서프보드는 길이와 형태, 타는 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롱보드는 부력이 좋고, 두껍고 폭이 넓어 다른 서프보드에 비해 안정적으로 테이크오프를 할 수 있어 주로 입문자들이 사용한다. 쇼트보드는 롱보드에 비해 부력이 작고 가볍다. 따라서 다양한 퍼포먼스가 가능하다. 서핑 후에는 꼭 서프보드의 염분을 말끔히 제거해야 녹슬지 않는다.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고, 이동할 때는 항상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

- **덱(deck)** 었드렸을 때 몸이 닿는 부분
- **바텀(bottom)** 서프보드의 아랫부분, 라이딩 시 바닷물과 접촉하는 부분
- **노즈(nose)** 서프보드의 앞부분
- **테일(tail)** 서프보드의 뒷부분
- **핀(fin)** 바텀 부분에 있으며,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겼다.
- **리쉬(leash)**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줄

서퍼의 옷, 서프 슈트

서프 슈트는 래시가드와 비키니 바텀(하의)이 붙어 있는 올인원 형태의 수영복으로, 소재 특성상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 강렬한 자외선도 차단해준다. 특히 파도에 자락이 말려 올라가는 래시가드의 단점을 보완해 몸에 꼭 맞게 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슈트 자체에 부력이 있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쉽고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게 돕는다.

서핑 동작

서프보드 위에서 동작은 크게 네 가지로 이뤄진다. 서프보드에 었드려 양쪽 팔을 짓는 패들링은 서핑 동작 중 가장 중요하다. 파도를 타기 직전까지 파도의 속도에 맞춰 양팔을 저어야 한다. 그래야 파도에 올라탈 즈음 팔을 쭉 펴서 상체를 일으키는 푸시업(pushup)이 가능하다. 패들링으로 파도와 나의 속도가 같아지고 푸시업으로 상체를 일으켰다면 '파도를 타는 순간'이 온다. 이때 무릎을 세우고 몸을 일으켜 서프보드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테이크오프(take-off).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손은 가슴에, 시선은 진행 방향 5m 이상에 둔다. 테이크오프에 성공했다면 균형을 잡으며 파도를 타는 라이딩(riding)을 한다.

서핑 포인트

강원도 양양 하조대 인근에는 국내 최초의 서핑 전용 해변, 서피비치가 있다. 과거 40여년간 군사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서피비치는 다양한 파도가 밀려와 고수는 물론 초보도 즐길 수 있는 서핑 포인트다. 서핑에 입문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국내외 최고의 서핑 전문 강사진이 진행하는 서핑 스쿨을 운영하며, 보드와 슈트 등 서핑 장비도 다량 갖추고 있다. 이 외 국내의 주요 서핑 포인트로는 부산 송정, 제주 중문, 태안 만리포 등이 있다.

📍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해안길 119 서피비치
☎ 033-672-0695 🌐 surfyy.com



SURFY Y BEACH





한 걸음만 더 가세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필리핀 - 보홀·바타네스

미안하지만, 내심 별달리 기대하지 않았다. 필리핀이 필리핀이지.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그 위로 뭉게구름이 손에 잡힐 듯 탐스럽게 피어오르는, 약간은 뻘한 열대의 풍경. 선글라스를 끼고 선텐에 열중인 여행자로 가득 찬 종려나무 그늘과 커플 티셔츠를 입은 채 손을 맞잡고 몰려다니는 신혼여행객. 우리가 생각하는 흔하디흔한 휴양지 풍경을 보여주는 곳,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보홀(Bohol) 과 바타네스(Batanes)를 여행하며 필리핀에 대한 오해를 수정해야 했다. 여행은 언제나 그러했듯, 예상하지 못한 풍경과 기대하지 않았던 아름다움,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한다.

세계 최고의 스쿠바다이빙 포인트

필리핀에서 열 번째로 큰 섬, 보홀.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700km 떨어진 이곳은 크기가 우리나라의 제주도만 하지만, 인구는 약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세부의 막탄이 잘 꾸민 휴양지 느낌이라면, 보홀은 소박한 시골 마을 분위기를 풍긴다.

‘필리핀의 숨은 진주’로 불리지만 이곳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아시아의 홍해’다. 그만큼 물이 맑아 전 세계 다이버가 보홀로 몰려든다. 다이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발리카삭. 해변에서 30m 정도만 나가면 울긋불긋 아름다움을 뽐내는 산호 군락을 만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고래상어도 볼 수 있다.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30분만 교육 받으면 쉽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보홀에서 스쿠바다이빙만큼이나 여행자에게 인기 있는 것이 돌고래 워칭이다. 팡라오섬에서 배로 40여 분 가면 파밀라칸(Pamillacan)섬 인근에 닿는데, 이곳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 광활한 바다에서 수백 마리 돌고래가 자유롭게 노는 모습은 고스란히 짜릿한 감동을 전한다.

새벽녘, 알로나 해변을 출발한 지 45분쯤 지났을 때다. 가이드가 푸른 바다를 가리켰다. 그의 손끝이 머무는 곳에 검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돌고래였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물위로 솟아올랐다. 돌고래는 파밀라칸섬을 향해 진격하듯이 헤엄치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뱃전 아래로 생기 넘치게 유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홀섬 중앙에 자리한 초콜릿 힐도 빼놓을 수 없는 비경이다. 우리나라 경주의 왕릉처럼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봉우리가 끝도 없이 솟아 있다. 이런 언덕이 무려 1700여 개로 추정된다. 건기(12월~5월)에는 풀이 초콜릿 빛갈로 변하지만 평소에는 싱그러운 녹색의 형언이다. 그 모양이 키세스 초콜릿을 닮았다고 해서 초콜릿 힐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전망대에 오르면 초콜릿 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꼭대기까지 놓인 계단은 214개. 전망대에 서자 제주의 오름 같은 봉우리들이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현지 가이드가 전해주는 초콜릿 힐의 전설은

달콤한 초콜릿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옛날 이곳에 거인이 살았는데 짝사랑하는 여인을 안고 도망치다 너무 짝 끼안은 나머지 여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거인이 슬퍼하며 흘린 눈물 방울이 언덕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설은 전설일 뿐, 실제로는 모두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졌다. 바닷속에 퇴적되어 있던 산호섬이 용기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망대에는 종이 하나 걸려 있다. 초콜릿 힐을 처음 찾은 이가 이 종을 울리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초콜릿 힐을 배경으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색적인 경험, 보홀에서 참치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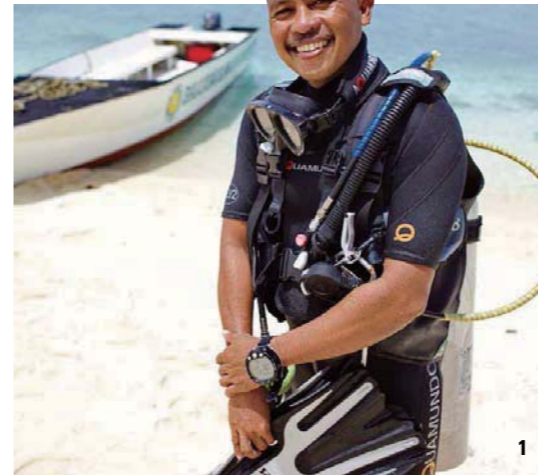
호세를 만난 곳은 보홀의 작은 어촌 마을 ‘망가’다. 필리핀의 전통 고기잡이를 취재하려고 이곳저곳을 물색하던 중 전형적인 어촌 마을인 이곳을 알게 됐고, 어렵게 호세라는 어부를 만나 하루 동안 함께 바다에 나가기로 했다. 망가에 아침 일찍 도착해 호세와 함께 나무로 만든 필리핀 전통 배 ‘방카’를 타고 참치잡이를 나섰다. 좁고 날렵하게 생긴 방카는 높은 파도에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양옆에 대나무 지지대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보홀의 어부들이 참치를 잡는 방식은 특이하면서도 간단하다. 사용하는 어구는 낚시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놓은 주낙과 어른 2명이 겨우 탈 만한 작은 방카가 전부. 고기가 있을 법한 곳에 부표를 설치하고 낚시줄을 푼다. 그러고는 빠른 속도로 배를 달리면 미끼가 수면 위로 튕겨 오르는데, 이 미끼에 달려 있는 작은 눈처럼 생긴 표시를 참치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달려들어 바늘에 걸린다.

거대한 참치를 잡는 꿈에 부풀어 바다로 나왔건만 고역이었다. 좁은 방카는 나와 호세, 그리고 호세의 아들이 함께 앉아 있기도 벅찼다. 제대로 다리를 펴기조차 힘들었고, 카메라 장비를 놓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밀려들었다. 계다가 적도의 뜨거운 햇살은 바늘처럼 따갑게 얼굴과 팔에 내리쬐었다.

참치도 도통 기별이 없었다. 갈매기가 떼 지어 날고

1. 투명한 바다를 간직한 보홀은 세계 최고의 스쿠바다이빙 포인트 가운데 한 곳이다.
2. 보홀 앞바다에서 참치잡이를 하고 있는 어부들
3. 물이 너무 맑은 보홀은 '아시아의 홍해'라고도 불린다.
4. 보홀 바다를 보랏빛과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는 노을
5. 보홀 어촌에서 만난 청년. 그날 잡은 참치를 들고 해맑게 웃고 있다.
6. 키세스 초콜릿을 닮은 언덕이 1702개나 솟아 있는 초콜릿 힐



아침이 되자 태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골목은 태풍이 지나간 흔적으로 어지러웠다. 나뭇잎과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몸통이 부러진 나무도 보였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태연했다. 바타네스 사람들에게는 태풍도 일상이었던 것이다. 태풍이 쓸고 간 자리에도 그들은 천연스럽게 천국을 말하고 있었다.





여행 정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필리핀 항공, 세부퍼시픽, 진에어 등이 인천-세부를 수시로 운항한다. 비행시간은 약 4시간 30분. 세부에서 보홀까지는 일반적으로 배를 탄다. 7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1시간 30분쯤 걸린다. 오션제트(Ocean Jet), 위섬 익스프레스(Weesam Express) 등의 선사에서 배를 운항한다. 화폐 단위는 페소(P). 1페소는 27원 정도 달러도 쓸 수 있다. 평균기온은 27C. 6~10월은 우기이고, 11~5월은 건기다. 우기라도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는 정도라 여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시간은 한국보다 1시간 늦다. 세부나 보홀에서는 트럭을 개조한 버스인 지프니와 택시, 트라이시클을 이용한다. 지프니는 정해진 경로를 순환하다가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 내려준다. 알로나 비치를 비롯해 대부분의 여행자가 즐겨 찾는 숙소는 팡라오섬에 위치하고 있다.



있는 곳으로 재빨리 배를 몰아 낚싯줄을 드리워 참치를 낚아채야 하는데, 우리 배에는 3명이나 타고 있다 보니 다른 배에 비해 기동성이 떨어졌다. 갈매기가 있는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앞서 온 배가 이미 참치를 낚아챈 뒤였다. 쉽게 말하자면 '뒷북'이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고, 호세는 주섬주섬 도시락을 꺼냈다. 네모난 양철통에 맨밥 몇 덩어리가 들어 있었다. 종일 바다에서 지내는 것치고는 빈약한 점심이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배 한 척이 다가오더니 작은 참치 한 마리를 휙 던져주었다. "너희,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거라도 먹어." 고기를 던져준 어부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고기를 받아 든 호세 역시 고마워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기선 원래 그래. 한 마리도 못 잡은 친구에게 고기 한 마리 먹으라고 던져주는 거, 그건 당연한 일 아냐?" 뭐, 이런 표정이었다. 호세는 속속 참치회를 뜨더니 우리나라 멸치젓 같은 양념에 버무렸다. 나와 호세, 호세의 이틀은 밥을 나눠 먹고 두어 시간 바다를 더 돌아다녔다.

하지만 끝내, 우리는 참치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오후 4시 즈음 포구로 돌아와야 했다. 그럼에도 말갈게 웃는 그들의 모습에 덩달아 미소가 흘렀다. 그래, 이것도 천국이겠지, 뭐.

태풍의 섬 바타네스에서 맛본 도라도

필리핀에서 가장 오지로 손꼽히는 섬이 있다. 필리핀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부르는 곳, 수도 마닐라보다 이웃나라 대만이 더 가깝다는 필리핀 최북단 바타네스 제도다. 인구는 고작 2만 명으로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닐라에서 850km 떨어져 있어 필리핀 사람들조차 쉽게 갈 수 없는 땅.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40분이 걸린다. 바타네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자급자족을 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물물교환을 하며 살았다. 시장이 처음 생긴 때는 2005년이다. 사실 시장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약 330m² 남짓한 공간에 채소가게와 정육점, 과일 가게가 모여 있다. 마을 최고 변화가는 300~400m 남짓에 불과하다.

바타네스가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태풍 때문이다. 바타네스는 태평양 연안에서 불어오는 태풍의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또 바타네스 주변은 수많은 태풍이 만들어지는 진원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은 '태풍의 섬' 혹은 '태풍 공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작은 태풍으로 조업을 자주 나갈 수 없는 바타네스의 어부들은 생선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주로 자연 건조를 시킨다. 우리네 황태처럼 해풍에 말려 보관하는 것이다. 가장 많이 건조시키는 물고기는 '도라도라' 불리는, 만새기다. 말린 고기는 1년 이상 두고 먹을 수 있다.

말린 도라도의 맛은 노가리와 비슷하다. 도라도는 '얌'과 함께 먹어야 한다. 바타네스 사람들은 쌀 대신 얌을 주식으로 먹는데, 거센 해풍 때문에 쌀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얌은 고구마하고 감자를 합친 맛으로, 도라도를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 모자람이 없다.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바타네스에서 태풍과 맞닥뜨렸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슈퍼 타이퐁'이라고 말하며 창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 태풍의 위력은 무시무시했다. 밤새 하늘이 울부짖는 듯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사놓은 산미구엘을 훌쩍이며 이 작은 섬이 태풍에 쓸려나가지 않기를 비는 것뿐이었다.

아침이 되자 태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골목은 태풍이 지나간 흔적으로 어지러웠다. 나뭇잎과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몸통이 부러진 나무도 보였다. 도로 옆에서 있던 나무 전봇대도 부러져 불타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태연했다. 모닝빵을 파는 아이는 '빵 사세요'를 외치며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다녔고, 빗자루를 든 아낙들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어지러운 골목을 쓸고 있었다. 바타네스 사람들에게는 태풍도 일상이었던 것이다. 태풍이 쓸고 간 자리에도 그들은 천연스럽게 천국을 말하고 있었다. 이곳은 태풍도 천국의 한 자리라고, 그렇게 말이다.

- 7. 돌로 두툼한 벽을 쌓은 바타네스 전통 가옥 앞에 선 모녀.
- 8. 바타네스의 전통 고기잡이. 그물을 던져 작은 고기를 잡는다.
- 9. 도라도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해풍에 말린 것이다. 우리나라 명태포와 비슷하다.
- 10. 자전거를 타고 바타네스의 골목을 달리는 소년.
- 11. 바타네스의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 일렬로 심어놓은 나무는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다.
- 12. 때문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바타네스 외부와 교류가 거의 없는 바타네스는 아직도 순수한 심성과 미소를 그대로 간직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 13. 바타네스의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 일렬로 심어놓은 나무는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빛, 바람, 물 세 박자로 노래하는 공간 제주 유민미술관

제주 동쪽 끝, 그곳엔 성산일출봉과 이웃하는 섭지코지가 보인다.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빛과 바람, 그리고 물이 이동한다. 계속해서 순환하는 자연의 소리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곳, 유민미술관을 찾았다.



제주의 물로 거대한 우주를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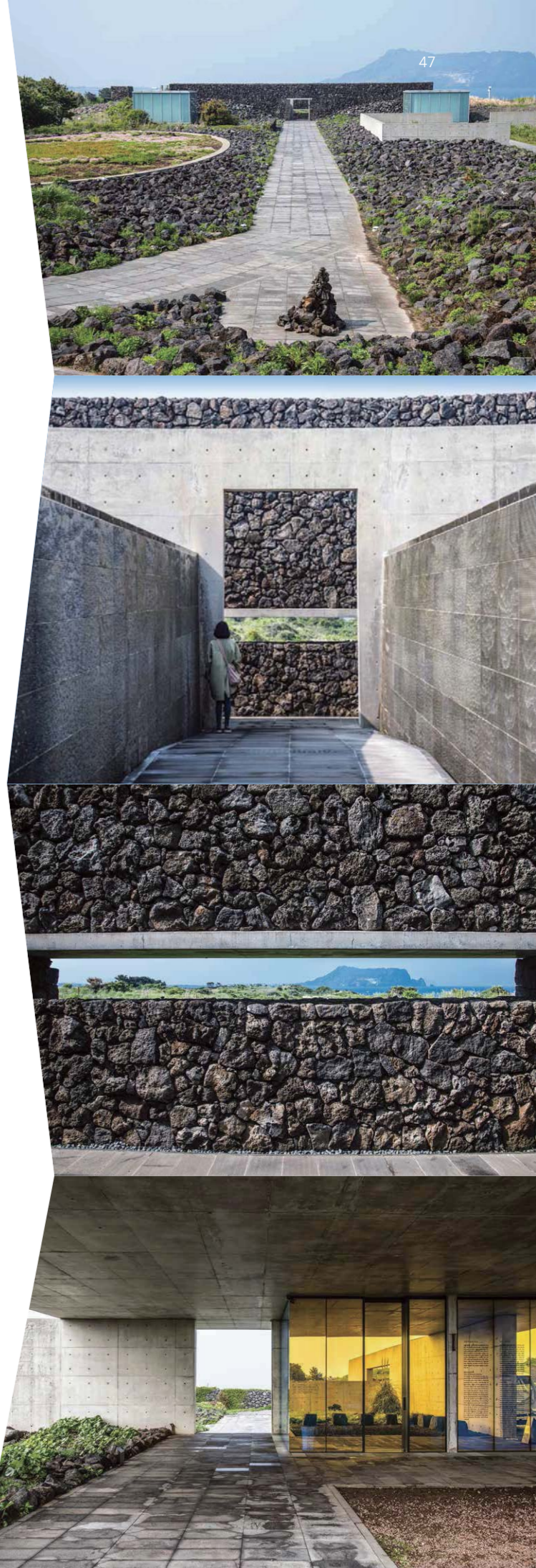
생생유전(生生流轉). 만물은 끊이지 않고 변한다.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흐른다. 물은 노래한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각기 다른 소리로 연주한다. 물은 안도 다다오가 건축에 담은 중요한 요소로, 그는 물로 마법을 부린다. 넘을 수 없는 경계에 물을 가두거나, 폭포처럼 소리를 내어 떨어뜨리기도 한다. 안도가 건축한 유민미술관도 마찬가지다.

입구에서 ‘여인의 정원’과 ‘돌의 정원’ 그리고 ‘바람의 정원’을 지나면 돌담 가득한 벽천폭포를 만난다. 제주 해안가 물을 의미하고자 만든 이곳엔 양옆으로 시원하게 물줄기가 흐른다. 그 사이를 건다 보면 순간 멈칫하는 곳이 있다. 갑자기 천천히 흐르는 물에 시간이 멈춘 듯, 흡사 우주로 순간 이동하는 기분일까. 설 새 없이 변하는 자연의 속성을 물로 대변한다. 그는 이를 ‘흐를 듯 흐르지 않는’이라고 표현했다. 벽천폭포 끝엔 작은 프레임이 보인다. 슬쩍 자리한 창에 날이 좋으면 성산일출봉을 가둘 수 있다.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 또는 혼을 담은 공간,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라 지을 만하다.

빛으로 공간을 짓는 시인

돌담과 돌담 사이를 이동하는 공간에는 여름의 푸른 하늘이 담긴다. 위를 바라보며 자연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 또한 안도의 특징이다. 평소 자주 올려보지 않던 하늘이 말을 건네 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은 그림자를 만든다. 그가 연출한 빛은 다양한 표정을 갖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은 돌담과 낮은 벽 사이의 표정이 달라진다. 이 작은 표정이 적잖은 감동을 준다. 안도는 자연이 주는 빛 본연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싶어 했다. 그의 시그니처인 노출 콘크리트와 하나도 같은 게 없는 제주 현무암에 빛이 스며든다. 차갑지만 조용한 공간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다. 더불어 안도의 키는 160cm가 안 된다고 한다. 그와 키가 비슷하다면, 같은 시선으로 유민미술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빛이 분다. 바람도 따라 분다. 물이 반짝인다.

유민미술관 ①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② 오전 9시~오후 6시(매주 화요일 휴관)
 ③ 064-731-7791



The-K와 함께 떠나는, 7월 문화가 있는 날



한국어 버전 10주년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탄생한 프랑스 대표 뮤지컬. 매혹적인 집시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사랑하는 세 남자를 통해 다양한 내면의 모습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는다.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에 빠진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혼란스러웠던 당대 프랑스 사회까지 자연스레 녹여낸다. 웅장한 선율의 51개 넘버는 춤춤하면서도 장대한 극의 서사를 따라 흐르며 관객에게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 📅 기간 ~8월 5일(일)
-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 관람료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대자연에서 펼쳐지는 세계적 클래식 축제 2018 제15회 평창대관령음악제

지난 15년간 국내 제일의 클래식 음악 축제로 자리 잡은 평창대관령음악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처음 열린다. 1대 강호, 2대 정명화·정경화의 뒤를 이어 강원도 출신 피아니스트 손열음을 3대 예술 감독으로 위촉, 새로운 음악제로 이끌 예정이다. 세계적인 솔리스트들의 의외의 조합으로 펼쳐진 앙상블 연주가 지금까지 평창대관령음악제의 하이라이트였다면, 이번 '실내악 시리즈'는 이 전통을 계승하는 프로그램일 것이다. 익숙한 아티스트와 낯선 아티스트의 앙상블로 묘한 클래식 음악의 힘을 보여줄 전망이다.

- 📅 기간 7월 25일(수)~8월 5일(일)
- 📍 장소 알펜시아 콘서트홀
- 🎫 관람료 프로그램마다 상이(약 2만~9만원)



CLASSIC



그것은 사랑의 색이다 사갈 러브 앤 라이프展

올해 사갈 전시는 세 가지 버전으로 열렸다. 마지막 격인 <사갈 러브 앤 라이프展>은 사갈의 사랑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중심으로 보여준다. 그가 한국인에게 이토록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순수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예술가이자 사랑의 힘으로 인간이 규정한 편견을 뛰어넘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번 전시는 2015~2016년 이탈리아 로마와 카타니아에서 열려 평단의 극찬을 받은 전시로 아시아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인 유대인과 고향 비테프스크 시절까지 다양하게 담았다.

- 📅 기간 ~9월 26일(수)
- 📍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 관람료 성인 1만5000원 / 청소년 1만1000원 / 어린이 9000원

EXHIBITION

나이프 아티스트 배태랑 낙서입문

드로잉과 낙서를 통해 나를 드러내며 소통할 수 있다면? 서울시 서대문구청이 주최하고 서대문 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와 '다같이카페'가 주관하는 전시회 <낙서입문>이 열린다. <낙서입문>은 나이프 아티스트 배태랑의 작품 전시로, 일상용품 위에 드로잉한 소품과 종고 프레임이 이용한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이는 전시만을 위한 소비는 지양한다는 작가의 의지를 담은 것. 예술은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드로잉과 낙서로도 표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음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다.

- 📅 기간 7월 16일(월)~8월 31일(금)
- 📍 장소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 다같이카페
- 🎫 관람료 무료



EXHIBITION

직장인 노후 준비의 걸림돌은 무엇일까. 저성장, 저금리에 이어 과도한 사교육비와 집값 상승까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여유가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적은 자금이라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산투자가 해안일 수 있다.

투자의 정석, 분산투자



분산투자의 중요성

분산투자란 서로 다른 자산을 한 가지 상품에 집중하는 대신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함으로써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한곳에 집중 투자해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에 내몰리기보다는 부동산으로 물가 상승에 대비하고 예금과 적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물론, 주식과 펀드 등 투자자산으로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익이 가장 많은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크고 최고 수익 종목을 매번 골라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험을 줄이는 안정적 수익 확보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 넓게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나눠야 하고, 좁게는 투자 종목을 분산해야 한다. 실물자산인 부동산이 자산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금융자산은 안전 자산과 투자자산에 각각 50%씩 비중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부동산이 70%, 금융자산 중에는 예금 등 안전자산이 80% 내외다. 선진국에 비해 안전자산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산 및 수익률 하락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평소 꾸준한 금융 공부로 투자 지식과 마인드를 높여나가 자산과 투자 상품을 적절히 분산한다면 리스크를 줄이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분산투자의 원칙과 전략

자산을 한 종목에만 투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부동산과 예금 및 적금, 주식, 펀드 이외의 채권이나 금과 은을 포함한 원자재, 환율 등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자칫 시간이나 능력을 벗어난 투자가 되어 원금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를 몇 가지 파고들어 위험이 각기 다른 서너 가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산투자의 기본은 자금을 알맞게 쪼개어 투자하는 것이 원칙인데, 펀드 투자를 할 때도 국내 및 국외 주식과 채권형 펀드, 부동산 펀드, ETF 등 상호 연관성이 적은 종목으로 배분해야 한다. 특히 투자는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투기가 아닌 만큼 펀드나 주식 투자 시 목돈을 일시에 넣기보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거나 저점 분할 매수를 하며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다.

분산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전략으로 첫째, 경제 상황 및 투자 흐름을 파악하고 비중을 달리해야 한다. 투자 순환의 일반적 주기 순서를 살펴보면 주식, 부동산, 원자재, 채권 순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저금리 및 부동산 규제 정책 아래에서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식이다.

둘째,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다. 각자 처한 투자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분산투자가 필요하다. 10%, 30% 등 목표수익률의 차이와 1~2년 정도의 단기투자인지 5년 이상 장기투자인지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달리 구성해 성향에 맞게 분산투자해야 한다. 비록 주식 관련 상품이 좋아 보이더라도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투자 위험이 낮은 원금보장형 예·적금이나 연금, 장기 저축 등 수익률 대비 절세 혜택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투자 자산별로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 투자자가 나름 분산투자를 위해 자산을 국내 개별 주식에만 여러 개로 나눠 투자할 경우 국내 경기가 어려워져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상황에 처하면 여러 기업으로 나눈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어 전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국내 주식과 별도로 미국이나 유럽 주식 및 채권에도 병행 투자하며 지역적 분산도 신경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는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 채권, 원자재, 통화 및 환율 등 서로 달리 움직이는 자산이나 상품에 적절히 분산투자하면 되지만 거품경제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 상황 시에는 모든 자산이 대내외적으로 함께 폭락할 수 있다. 이때는 현금 보유 비중을 높여 위험에 대비한 후 자산 가치가 낮아진 시점에서 다시 현금을 줄이고 투자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역발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분산투자, 펀드

수익률을 극대화하여 다소 공격적으로 분산투자를 하고 싶다면 펀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장인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일일이 기업을 분석하고 최고 업종의 주식을 골라 투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펀드는 전문가에게 맡겨 소액 투자 자금으로도 많은 주식에 분산투자하며 위험을 낮춘다. 직접투자 시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좋은 주식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가치가 높고 성장성이 큰 회사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산업과 업종으로 분산하다 보니 그중 몇몇 회사의 수익률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손실 대비 수익률 평균을 높게 된다.

문제는 분산투자의 효과가 생각만큼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단기 수익률 하락에 연연하여 조기 환매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분산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를 통한 장기 접근이 필수다. 더불어 시점과 지역적 분산투자를 비롯해 자산 비중이나 상품별 분산 등 위험 회피 방법을 철저히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금리나 환율 등 시장 상황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급변할 수 있어 자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재조정해주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최지만 경기 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가로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5~2016년 <한국교육신문>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였다. 국무총리·교육부장관·경기도지사·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은 The-K 액티브시니어 강연회

지난 5월 23일 수요일 저녁 시간, 여의도 The-K타워 지하 2층 대강당에 한나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마련한 'The-K 액티브시니어 강연회'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자 하는 참석자들이다. 공제회원들의 공금증과 기대가 교차했던 시간을 공개한다.



노후, 아는 만큼 보인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The-K 액티브시니어 강연회' 참석자 공지를 올렸을 때 관계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100명의 참석자를 모집하는 글에 무려 930여 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 혹은 그 이상도 산다는 고령화시대에 '노후'라는 화두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새삼스럽게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 공제회가 제공한 간식과 커피를 받아 들고 착석하는 회원들의 모습에서는 한껏 부푼 호기심과 기대

가 엿보였다. 오늘 강연회의 사회를 맡은 서울지방 부 황도현 과장이 먼저 장내를 가득 메운 참석자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The-K 액티브시니어 강연회'는 퇴직을 앞둔 50~60대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건강·노후·재산 관리 등은 퇴 설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교직원공제회 측의 인사에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오늘 강연회에서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이는 이호



선 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호선 교수는 요즘 가장 '떠오르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송실사이버대학교 학과장,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KBS <여풍당당> <아침마당>, MBN <속풀이쇼 동치미>, JTBC <공금증 해결단> 등에 꾸준히 출연하면서 두터운 고정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스타 강사'다.

이날 이호선 교수가 들고 나온 주제는 '중년 이후 생애 설계와 행복한 노후'. 인생의 절반이 넘어서면서 변화가 찾아오는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검은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는 노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한마당이 기대되었다.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신분당선까지 있는데 저는 연세대와 서울대, 강남과 홍대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이호선입니다." 재치 있는 자기소개에 장내에는 큰 웃음소리와 함께 다시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부심, 우선순위, 전문성을 가져라

강의의 시작은 나란히 앉은 사람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 비록 강의장에서 처음 만났지만 모두가 공제회원이라는 공통점 때문일까? 반갑게 나누는 인사 소리가 제법 소란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장내를 울렸다.

이호선 교수는 자신이 어떻게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과거 경험담을 적절히 풀어내며 강의를 시작했다. 빠르고 정확한 어조, 확신에 찬 말투로 청중을 확확 끌어당겼다.

이호선 교수는 심리학의 주요 테마로 '변화'와 '적응'을 꼽았다. 인간은 누구나 다가오는 변화에 적응하고, 그 결과를 고백하는데, 고백에는 좋은 고백과 나쁜 고백이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변화에서 누군가는 좋은 적응을 하고, 누군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합니다. 좋은 적응은 '내 인생은 괜찮다' '살만 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고백을 하게 만

들고,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은 '황이다' '꽝이다' '똥이다' 등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같은 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적응을 하고, 서로 다른 적응 끝에 다른 고백을 하게 될까요? 말을 바꿔보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회원들의 사각사각 부지런히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군에 평생 종사해온 만큼 배움의 자세 역시 남달랐다.

이호선 교수는 객석을 향해 자신이 삶 앞에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를 질문했다. 그리고 자신을 선뜻 프로라고 말하지 못하는 회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기준은 '3P'라고 이야기했다.

이호선 교수는 첫 번째 P로 Pride(자부심)를 들면서 모든 관계는 '팩트'가 아니라 '해석'이라고 정의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관계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P는 Priority(우선순위)로, 자신은 집에 들어가면 카톡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바로 이 자리에 몰입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자리에도 몰입하지 않는다”라는 이호선 교수의 말에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P로는 Professionality(전문성)를 꼽았다. 관계에 있어서 ‘좋은 기술’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으로, 이를 위해 상대방의 인성을 칭찬하고 자주 접촉하며 신뢰를 줄 수 있는 미소를 보낼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호선 교수는 이날 강의의 핵심으로 “액션!”을 외치고, 이어 보다 큰 목소리로 “액션(action, 실천)을 통해서 중년 이후의 삶을 ‘노우(know)’에서 ‘하우(how)’로 넘기는 프로가 돼라”고 주문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회원들은 이호선 교수가 퇴장할 때까지 환호와 박수를 보냄으로써 그의 열의와 에너지에 화답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모든 것

두 번째 강의를 연이어 열었다. 무대에 오른 인물은 서울지부 이보라 주임. 이보라 주임은 “선생님들의 현실적인 노후 자금에 대해 저희가 제안하는 노후 설계를 설명하고자 한다”라며 운을 뗐다.

“선생님들께서 통상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고 있지만 보통 재직 기간 동안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마나 쌓여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이런 장기저축급여가 퇴직 후 분할급여금으로 전환될 경우 어떻게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노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주제가 나오자 강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4.9세인데 비해 교직원들의 평균 퇴직 나이는 60세 정도다. 즉, 남은 25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한다. 노후 자금 관리의 중요성으로 자녀 결혼, 자녀 학자금, 부모님 부양, 건강 문제를 꼽은 이 주임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상품을 추천했다. 특히 은퇴 후 좀 더 여유롭게 여행과 운동 등 다양



한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한다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통한 노후 자금 관리는 필수라는 것이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시중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가 15.4%인데 비해 0~3.46%밖에 안 되는 낮은 이자소득세와 시중 보험사의 즉시연금상품과 비교해 높은 실수령액이 큰 장점”이라고 실제 수치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자 회원들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을 꼼꼼히 소개하고,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 전체 해약만 가능하고 부분 해약은 불가하다는 것, 해약 후 재가입이 안 된다는 것 등 주의 사항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 외로 많은 회원이 손을 들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회원이 중도 사망하는 경우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생활급여와는 무엇이 다른지, 상속세가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진 것이다.



인천체육고 김영주 교사는 “오늘 강의 주제에 관심이 많아 신청했는데 큰 도움이 됐다. 교육자 집안이기 때문에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큰데 오늘 평소 궁금해하던 여러 사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꿈꾸며 이날 한자리에 모인 한국교직원공제회원들. 두 손은 물론 머리와 가슴까지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이 소중한 시간이 회원들에게 선물처럼 계속 주어지길 바라본다.



MINI INTERVIEW



김계숙 상명대 교수

오늘은 여러모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게 사실 이거든요. 모르던 부분과 궁금하던 부분을 짧고 굵은 강의를 통해 모두 알 수 있어서 향후 노후 설계에 큰 보탬이 될 듯 합니다. 이호선 교수의 강의도 중간중간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해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교직원공제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송민숙 서울 성암여중 교사

저는 1984년도부터 장기저축급여 제도에 가입해 꾸준히 저축하긴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몰랐어요. 내년도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장점은 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죠. 때마침 관련 메일이 와서 강의에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후를 앞두고 연금 활용은 물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뜨거운 여름 열기로 가득 찬 당신, 강원도 자연의 생으로

7월, 한낮의 열기가 본격적인 여름을 알려준다. 더위에 지친 몸은 낯것의 자연을 갈망하니 비로소 떠나야 할 때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파닥이는 자연을 찾아 우리는 강원도로 떠난다.



The-K 설악산가족호텔

최고의 핫 플레이스, 강원도의 여름을 찾아서

더위에 전국이 들끓는다. 뜨거운 햇살과 싱그러운 바다, 드넓은 백사장은 피서객으로 가득하다. 젊은이들은 파도에 몸을 던지며 저마다의 여름을 만끽한다. 이맘때 강원도는 국내 여름휴가지 중 최강자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핫 플레이스다. 부동산의 인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모르니, 강원도의 여름이 또 한번 들썩일 준비가 됐다. 올해는 특히 강원도가 더욱 가까워졌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2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춘천은 물론 홍천, 인제, 속초, 강릉까지 줄어든 거리만큼 여유로움이 생긴 건 덤이다. 자연의 생이 가득한 강원도의 여름을 만끽해보자.

설악으로 떠나는 신나는 여름휴가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지구에 위치하는 만큼 설악의 비경과 동해의 푸름을 한번에 즐기기에 좋다. 질푸른 녹음이 주변 국립공원 일대를 물들인다. 산세의 여덕으로 공기는 청아하기 이를 데 없으니 울산바위·비룡폭포·금강굴을 찾는 걸음이 더욱 상쾌하기만 하다.

특히 '신홍사-흔들바위-울산바위' 탐방 코스는 기암괴석과 녹음이 어우러져 수려함이 절정을 이룬다. 소요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정상에 오르자 저 멀리 동해와 대청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땀으로 젖은 머리칼을 가르는 바람, 그 바람이 농축된 열기를 차분히 식혀주니 한결 산뜻한 기분을 만끽해 본다. 그 밖에 속초해수욕장, 대포항, 물치항, 낙산사, 통일전망대 등 The-K설악산가족호텔 주변의 풍부한 먹거리와 볼거리 또한 주목할 만하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콘도형 호텔이다. 다양한 타입의 객실과 다목적 홀, 소회의실은 기업체 연수 및 수학여행으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며 탁구장, 전자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삼삼오오 모여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알맞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 유적, 산악 체험 등 다양한 테마 코스는 물론 편안한 객실과 편리한 교통까지, 다채로운 강원도의 여름을 즐기려는 공제회원에게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가성비 좋은 숙소가 되어줄 것이다.

7월, 누구보다 즐겁게 더위를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강원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The-K설악산가족호텔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470-7

033-639-8100

thek-hotel.co.kr

The-K설악산가족호텔 인근의 힙 플레이스(Hip Place)



속초



속초 봉브레드

건강하고 유익한 빵을 만드는 빵집. 지역에서 난 찹쌀과 국내산 마늘 등 질 좋은 재료를 선별해 장인의 손길로 신선하고 건강한 빵을 만든다. 스테디셀러로는 향기로운 마늘 향이 매력적인 마늘바게트와 블루베리 생크림으로 만들어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연인의 빵'이 있다. 그레이와 화이트 컬러가 어우러진 심플한 북유럽 스타일 인테리어로 빵이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344-1



속초 블루앵커커피로스터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즐기는 커피 한잔의 여유가 만히 눈을 감으면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귓가를 파고든다. 웬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 앵커피는 많은 사람이 찾는 영랑 해안도로의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카페 2층과 3층에 마련된 오픈형 테라스에서는 날것의 바다를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3층은 안전을 위해 노 키즈 존으로 운영되니 참고하자.

☎ 강원 속초시 영랑해안길 223

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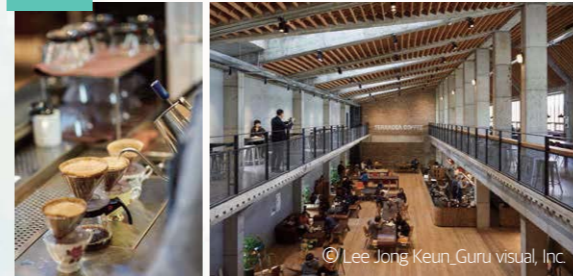


고성 테일카페

고성 가진 해변에 가면 바다 피크닉으로 유명한 테일카페가 있다. 마을 골목을 거닐다 만나게 되는 작고 소박한 카페. 시큰둥하게 놓여 있는 테이블과 의자, 무심한 듯 무덤덤한 장식은 시골 할머니 댁에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메뉴도 분위기만큼이나 심플하다. 스테디셀러인 '바다 피크닉 세트'는 2인 1세트 주문 시 드립 커피와 컵, 드립 서버, 디저트, 피크닉 매트를 제공한다. 이용 시간은 1시간 30분. 한적한 해변에서 즐기는 티타임, 테일카페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길 40-5

강릉



강릉 테라로사커피공장

2002년 문을 연 테라로사의 첫 번째 매장이자 본점. 본래 커피콩을 볶아 카페, 호텔, 레스토랑 등에 공급하는 로스팅 팩토리로 출발한 곳으로, 소문을 듣고 커피를 맛보러 오는 이들이 늘면서 카페를 겸하게 됐다. 현재의 빨간 벽돌 건물은 2017년 7월 새로 조성한 공간. 카페, 베이커리, 레스토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제철 식재료를 테라로사식으로 섬세하게 풀어낸 브런치와 디너를 즐길 수 있다. 넓은 부지 곳곳을 아끼지 않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2층은 노 키즈 존으로 운영된다.

☎ 강원 강릉시 구정면 현천길 7



강릉 봉봉방앗간

시간이 쌓인 오래된 골목길의 오래된 공간, 강릉대도호부가 있는 명주동 골목을 거닐다 만나게 되는 봉봉방앗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옛 방앗간 건물을 개조해 카페와 갤러리로 조성한 문화 공간이다. 직접 볶은 콩으로 내린 핸드 드립 커피와 허브티는 유기농으로 재배해 건강하고 깊은 향을 품는다. 널찍한 공간에 여유 있게 배치된 빈티지 원목 테이블, 창밖으로 늘어진 담쟁이 넝쿨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곳에서 바람을 맞으며 벽면의 그림을 차분히 감상해보자.

☎ 강원 강릉시 경강로2024번길 17-1



한국교직원공제회

YOLO! 교직원 Life 지원받고 여름휴가 가자!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는 교직원의 여름휴가비 지원을 위한 이벤트 'YOLO! 교직원라이프 지원받고 여름휴가 가자!'를 진행한다. 7월 9일부터 27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총 500여 명에게 여름휴가비 100만원, 반얀트리 바우처, 오션월드 바우처, 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선물한다.



휴가비 지원금
100만원 1명



반얀트리 바우처
30만원 2명



오션월드 바우처
종일권 (2인) 10명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 20명



치킨상품권
100명



스타벅스 커피
367명



공제회 보험 교직원라이프, 소아암 어린이 후원금 전달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는 6월 14일 여의도 The-K 타워에서 소아암 어린이 후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 재단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교직원라이프'는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링거 케이스를 제작해 분당서울대병원에 전달했으며, 올 2월에는 소아암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온라인 동영상 제작하고 응원 댓글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공제회 회원의 날 행사 7월 30일부터 개최



'The-K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의 날' 골프행사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경기 여주 소피아그린CC에서 개최된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4인 1팀을 구성해 7월 30일부터 10일까지 소피아그린CC 홈페이지(www.sophiagreen.c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8만원(식사 및 기념품 제공, 캐디피 별도)이다.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는 7월 13일 개별 문자 발송하고, 소피아그린C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31-887-8100

자녀 입양 시에도 출산축하금 지급

한국교직원공제회는 7월 1일부터 회원이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출산축하금은 공제회 복지부조제도 중 하나로 종전의 경우,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축하금을 지급했다. 7월 1일 이후 입양 건부터 청구 가능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축하금은 회원 자격 취득 후 1년이 지난 회원이 출산·입양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첫째와 둘째는 1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을 지급(부부 회원의 경우 각각 지급)한다. 청구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ktcu.or.kr) 참조

한편, 공제회는 회원에게 신규회원가입축하기념품, 결혼기념품, 고구와 회원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다양한 복지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연금기관 협의회 개최



'공제·연금기관 협의회'가 지난 6월 14일 여의도 공제회 신축회관 The-K타워에서 개최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등 8개 공제·연금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The-K타워 소개가 진행됐다.



The-K Family

The-K예다함상조, '아·태 스티비 어워즈' 기업활동혁신상 수상



The-K예다함상조가 지난 6월 1일 홍콩 미라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Asia-Pacific Stevie Awards)' 시상식에서 업계 최초로 기업활동혁신상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예다함의 사회공헌 사업 '사랑다함 CSV 프로젝트' 때문이다. 사랑다함 CSV 프로젝트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초회 납입금

을 모금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젝트다. 스티비 어워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영 성과와 홍보 활동을 평가해 시상하는 국제적인 상으로 올해 15개국에서 800여 편이 출품됐다.

The-K손해보험, 초등학교 UCC 공모전 개최

The-K손해보험은 '제3회 The-K 초등학교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초등학교 교장협의회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진과 영상 두 부문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10월 21일까지며, 각 부문별 대상을 포함해 총 150여 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대회 요강 및 유의 사항은 홈페이지(www.educar.co.kr)참조

문의 02-6670-8803~6

The-K호텔과 함께하는 풍성한 여름휴가

The-K호텔서울

여름을 맞아 도심에서 힐링 공간을 찾는 고객을 위해 8월까지 서머 힐링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 A는 일반실 1박, 우첼로 조식 뷔페 2인 15만원 ▶패키지 B는 일반실 1박, 더파크 석식 뷔페 2인 18만원 ▶패키지 C는 일반실 1박과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2인 13만1000원이다. 패키지 이용 고객은 우첼로, 더파크, 델리에서 식음료 15% 할인된다. 또한 분수광장에서 라이브 음악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BBQ 비어 파티'를 9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일요일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디럭스룸 1박과 BBQ 비어 파티 2인 쿠폰이 제공되는 'BBQ 비어 패키지'도 17만원에 판매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thek-hote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71-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7월 1일~19일 입실하는 고객에 한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과 게르마늄 온천 2인 이용권을 제공한다. 전남 구례 산동면에 위치한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온천 시설을 갖춰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좋은 숙소다. 특히 천연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온천수는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 061-783-8100

The-K호텔경주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공제회원을 위해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머 쿨 패키지'를 판매한다. ▶A형은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구성 10만5000~18만원 ▶B형은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야외 수영장 2인 이용권은 12만7000~20만2000원이다. 한편, 여름철 특선 메뉴도 선보인다. 한식당은 가오리물 밀면과 녹두삼계탕을, 커피숍 아이리스는 망고요거트와 눈꽃홍시빙수 등을 출시했다. 경주 부문단지에 위치한 The-K호텔경주는 온천 전용 복합 휴양 시설 '스파월드'로 유명하다. 또한 무더위에 지친 공제회원을 위한 야외 수영장을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운영한다.

문의 054-745-8100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7월 1일 맞이하는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7월 한 달간 모든 투숙객에게 르플랑과 컬래버레이션으로 제작한 디퓨저 '당신과 함께한 잊지 못할 순간'을 증정한다. 제주도 탐동 해안가에 위치한 라마다프라자제주는 고품격 리조트형 비즈니스 호텔로 400개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이다. 계절마다 제주의 제철 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비롯해 고객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패키지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1-729-8100

와~여름이다!

The-K 매거진 7월 즉석당첨이벤트

바야흐로 여름휴가, 생각만 해도 즐거운 추억!
시원한 음료 쪽쪽 들이켜며 더위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이벤트 기간 7월 1일~31일

200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200개

GS편의점
5천원권(모바일)



200개

SPC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모바일)



참여 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7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성별과 연령을 체크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기재 또는 미가입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프티콘은 7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행복이 사랑이 가득한 집

6월은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사랑을 듬뿍 느끼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곳곳마다 사랑이 넘쳐났거든요. 하지만 어디서나 쉬운 사랑(?)은 없겠죠. '아름다운 동행' 촬영차 떠난 곳은 경남 하동. 싱그러운 차밭만을 생각했지만, 하동의 별은 매우 따가웠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바로 올해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죠. 그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지만 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하동 차밭은 신나게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해주신 심경희 선생님, 이에경 선생님, 김예원 선생님의 미소는 더욱 아름다웠죠. 너무 뜨겁고 더워 답답할 만도 한데, 언제나 가르르 웃음 짓던 선생님들 덕분에 스태프들이 오히려 힘이 났어요.

하동 야생 차밭을 힘겹게 아주 힘겹게 올라갈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발걸음도 휘청휘청. 그러나 야생 차밭을 만났을 때의 느낌이란! 세상을 모두 품은 듯한 야생 차밭이 주는 매력에 너도나도 눈을 땔 수 없었습니다. 차밭의 내음, 바람의 온도, 석양으로 인해 태양을 삼킨 것처럼 보이는 광경... <The-K 매거진> 가족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숨은 곳에서 고생하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요. 제주 촬영을 마치고 곧바로 하동으로 온 한상무 실장님. 덕분에 제주의 특산물인 오메기떡으로 충전 잘 했습니다. 실장님의 사진은 늘 그렇듯이 따뜻하네요. 땀으로 뒤덮은 그 순간에도 스태프와 동행 가족을 함께 챙긴 이경희 기자님, 기자님이 내린 시원한 홍차는 어느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입안이 즐거웠어요.

한 분이 빠졌네요. 7월호 매거진 지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두 어머니와 예비 신부 그리고 스태프까지 살뜰하게 챙긴 예비 신랑 유경호 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울러 김예원 선생님, 유경호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은 행복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꾸려나가실 거라 고이 짐작합니다. 7월호 매거진을 편집하는 이 순간에도 그 시간이 여전히 그리워집니다.